
碩士學位論文

兎山堂 본풀이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1989年 12月 日

兎山堂 본풀이 研究

指導教授 玄 容 駿

金 東 燮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89年 12月

金東燮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謝 重 海 

委 員

許 橋 

委 員


玄 容 駿 

濟州大學校 大學院

1989年 12月

A Study of 'Tosan—Dang Bonpuri(=Myth)'

Dong-Seop Kim
(Supervised by Professor Yong-Jun Hy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89

目 次

I. 序 論	1
1. 問題의 提起	2
2. 研究의 目的	5
3. 研究方法과 資料	6
II. 濟州島 巫俗과 調查地 概觀	10
1. 濟州島 巫俗儀禮와 兎山堂굿	10
2. 調查地 概觀	13
1) 一般環境	13
2) 信仰環境	17
III. 兎山堂 本풀이의 構成과 變異	19
1. 兎山堂 本풀이의 構成的 特徵	23
2. 兎山堂 本풀이의 變異樣相	37
3. 本풀이의 文學的 意味	40
IV. 兎山堂굿과 本풀이의 相關性 分析	44
1. 방울놀림	47
2. 방울품	49
3. 푸다시	56
4. 갈롱머리 내놀림	57
5. 주잔넘김	61
V. 結 論	63

I. 序 論

文化는 어떤 社會나 集團의 成員들이 一般的으로 共有하는 一連의 學習된 信仰· 價値· 行爲인 것¹⁾으로, 한 集團이 갖는 各各의 文化要素 즉 社會· 宗教· 經濟· 習俗· 物質文化 등이 相互 機能關係로 맺어지면서 構造的 聯關을 形成한 複合體인 것²⁾이다. 이러한 文化는 다른 文化와의 交流나 自體的인 要因에 의해 부단히 解體와 再統合이라는 變化를 되풀이 하지만, 일단 그 基本構造가 잡히고 그 型이 이루어지면, 變化의 過程 속에서도 그 構造的 軸은 좀체로 바뀌지 않고 持續되는 特性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한 例로 濟州島民의 生活와 密接한 關聯을 맺으면서 盛行해 온 民間信仰의 하나로, 巫俗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뿐만 아니라 육지부에서도 古代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期間동안 一般 民衆에 의해 採用된 民間信仰의 하나이면서, 呪術· 宗教的 儀禮로 나타나는 것이 巫俗이다. 이러한 巫俗은 어느 地域社會에서나 統合된 共同體 成員의 必要에 의해서 發生했던 原初 社會의 所產物이다. 그러기에 地域的인 地方色을 濃厚하게 反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民族의 基層的 宗教現象으로 普遍的인 特性을 지닌 文化 要素이기도 하다.

1) Ember, C. R. & Ember, M.; *Cultural Anthropolog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3, p. 33.

2) 玄容駿: "濟州島 文化의 基礎的 性格", 「濟研」2集, 濟州大學校 濟州島問題研究會 1975. p. 5.

1. 問題의 提起

濟州島는 옛부터 巫俗이 盛行한 地域이었다.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國策的 標語까지 登場할 만큼 우리 民族의 主軸 生業은 農業이었다. 그런데 火山灰土로 이루어진 토양과 돌, 그리고 바람은 農耕生活을 극히 어렵게 만들었던 主要한 要因으로, 척박한 삶의 터 바로 그것이었다. 이때문에 자연히 島民들은 海岸線을 따라 接한 바다의 발조차 일구어야만 했다. 여기에 더하여 絶海孤島의 流配地인 이곳에, 民弊의 主犯이었던 貪官汚吏들의 收奪이 많았던 점과 歷史의 곳곳에 남아있는 受難의 歷史³⁾ 또한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克服하는 出路로 超自然的인 存在를 찾게 되었는데, 이러한 理由가 濟州島에 巫俗이 盛行했던 理由와 直結되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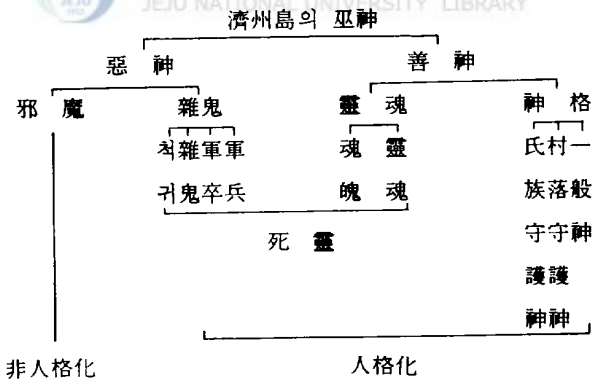
이처럼 섬이라는 自然的인 環境과 封建社會였던 歷史的인 背景 속에서, 그 나름의 文化를 일구어 온 濟州島民들이 오랜 時間을 통해 信仰해온 巫俗信仰은 濟州島의 基層文化를 밝히는 重要한 端緒가 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더군다나 宗教·文化의 積層을 통해 한결같이 그 밑바탕에 깔려 低流를 이루면서, 精神史的 基層을 이루고 있는 民俗宗教現象인 巫俗의 重要性은 아무리 強調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濟州島의 巫俗信仰은 다른 여러 地域의 民間信仰처럼 教團이나 教理上의 組織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단골·심방·신’이라는 信仰 3要素에 의해 굿이라는 儀禮를 통해 이루어진다. ‘단골’이란 어느 ‘심방’에게 어떠한 目的의 굿이든 모든 굿을 依

- 3) 삼별초의 難, 몽고의 강점, 잣은 왜구의 침입 등에서부터 최근의 4·3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濟州島民의 生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 4) 濟州島 巫俗에서 ‘단골’은 마을을 單位로 이루어지는게 보통이다. 이는 마을제인 堂굿을 주관하는 ‘심방’이 따로 있기 때문이며, 특히 姓氏別로 位階를 구분하는 ‘상단골·중단골·하단골’이 본풀이에 의해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다. 兎山堂도 본풀이에 의해 단골의 位階가 구분되어 있다.
또한 全羅道에서 巫覡을 稱하는 ‘단골’과는 區別된다.

賴하는 信仰民을 말한다. 보통 한 自然部落의 成員들은 대개 한 '심방'의 '단골'이 되어 있으며, 그래서 한 마을 사람들은 거의 일정한 '심방'에게 儀禮의 執行을 依賴하는 傾向이 있다. '심방'⁵⁾은 巫覡을 通稱하는 濟州島 方言으로, 옛부터 島民의 宗教的 職能者로서 그들 生活의 여러 方面에 커다란 機能을 해왔음은 물론, 오늘날에도 역시 民間信仰儀禮의 主要한 담당자로서 部落의 公的 祭儀나 私的인 呪術·宗教的 領域에 깊이 關與하고 있다. '신'⁶⁾은 人間事의 모든 것을 管掌하는 超自然的인 存在로, 一般神과 堂神·家神을 합쳐 그 數가 一萬 八千에 이른다.⁷⁾ 이들 神은 各各이 갖는 一定한 職能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位階와 組織關係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神은 天上과 地上의 神들로 무리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上·下로 體系化된 位階를 가진다. 그러나 부여된 職能의 遂行에 있어서는 完全히 獨自의이고 平等함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처럼 呪術·宗教的 儀禮인 곳에는 반드시 信仰 3要素인 '단골·심방·신'이 수반된다.

- 5) '심방'은 '스나이 심방·예편심방'으로 男·女를 구분하고, '심방·소미·제비'로 機能을 구분한다. 심방 자신들은 '무당·심방'이라 불리는 것을 싫어하며, '보살·신자'로 불리기를 바란다.
- 6) 濟州島의 巫神들을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玄容駿：“濟州島 巫神의 性格과 神統” 「濟州島」, 1975. p. 131에서 전제)

- 7) 玄容駿：“濟州島巫俗研究”, 1986. 集文堂. p. 148.
이 책에서 巫神의 多數를 나타낸 관용구로 理解시키고 있다.

信仰 3要素 가운데서도 굿의 性格을 規定짓는 代表的 要素로 ‘신’에 對하여 우선 研究할 必要가 있다. 柳東植은 巫敎⁸⁾를 일컬어 ‘歌舞를 통해 신령과의 直接 交際를 갖는 것이며, 神靈의 힘을 빌어 人生問題를 해결하려는 종교 현상⁹⁾’이라고 했는데, 이때 直接 交際를 갖는 神靈이 굿의 對象神이다. 이러한 神은 언제·어디서나 누구에게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神들과 直接 交際하는 場으로서, 交渉이 이루어지는 場所가 神聖空間인 祭場이다. 神이 이 祭場에 到來하게 되는 것은 ‘심방’이 굿에서 그 神의 根本을 밝힘으로서 가능해지는데, 濟州島 巫俗에서는 이를 ‘본풀이’라고 한다. 이러한 ‘본풀이’는 儀禮의 對象神이 神으로서의 位置를 갖출 때까지의 根本來歷이나 行蹟 등을 解釋·說明하는 神話이면서, 어느 정도 儀禮의 形式을 決定하기도 한다.¹⁰⁾ 또한 면면히 이어온 民衆들의 敍事文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研究들이 濟州島의 巫俗儀禮인 굿이 ‘본풀이’와 密接한 關聯을 맺으면서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看過해 버려, 巫俗儀禮나 ‘본풀이’에 關해서 體系的인 研究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대부분의 民俗學的·文學的 研究가 機能의 分析이나 資料의 蒐集에 置重했고, 굿과 ‘본풀이’를 遊離시킨 상태에서 각각을 理解하려고 했는데도 그 原因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本研究은 지금까지 蛇神崇拜의 聖所로 널리 알려진 兎山堂을 對象으로 그 堂굿과 본풀이를 理解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巫俗儀禮인 굿과 神話인 ‘본풀이’로 지금까지 領域別로 단혀있던 研究傾向에서 탈피함은 물론이고, 特殊한 口碑文學인 본풀이와 呪術的 宗教儀禮인 굿

8) 柳東植은 巫敎와 巫俗이라는 用語를 구분해서 使用하는데 그는 巫敎를 先史時代로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各양각색으로 나타났던 샤머니즘적인 宗教現象 전체에 대한 총칭으로 使用하였고, 巫俗은 現在 우리가 볼 수 있는 民間信仰 가운데 이른바 샤머니즘으로 말하는 現象에 대한 이름으로 使用한다고 定義한 바 있다.

9) 柳東植: “韓國巫敎의 宗教的 特性”, 「韓國巫俗의 綜合的 考察」,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2. p. 131.

10) 兎山만의 堂굿을 예로 들더라도 여드렛당과 일렛당 본풀이가 ‘방울뿔’과 ‘아기놀림’의 儀禮가 굿의 전 과정에서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 相互 關聯性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각각이 갖는 特性을 理解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本研究는 兎山堂굿이 갖는 濟州島 巫俗 속에서의 特殊性과 一般性에 관한 事例研究로서 또한 重要한 意味를 지닐 것이다.

2. 研究의 目的

본풀이를 굿과 아울러 보려는 試圖는 본풀이가 갖는 文學的 特性을 밝히고, 그것이 祭儀에서 갖는 意味를 밝힘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文學的인 特性을 밝히기 위해서는 본풀이가 갖는 口碑文學的 性格을 前提로 해야 한다. 본풀이는 굿에서 몇가지의 巫樂器¹¹⁾와 行爲를 동반하면서 심방에 의해 口演되며, 그들을 통해 口傳되어온 口碑文學이다. 徐大錫은 巫歌를 ‘神을 섬기는 巫가 神에 대하여 베푸는 儀式에서 神을 부르고, 神에게 人間의 意思를 傳達하거나 神의 意思를 人間에게 傳達하는 言語’라고 定義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巫歌가 祭儀的 機能을 갖고있는 特殊한 口碑文學임도 아울러 指摘하였다.¹²⁾

이처럼 巫歌인 본풀이는 神聖性和 아울러 呪術性和 娛樂性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며, 심방에 의해 行祭되는 呪術·宗教的인 巫俗儀禮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굿은 어떠한 機會와 形式으로 이루어지든 단골의 目的에 의해 시도되며, 심방의 主掌에 의해 行祭되고, 그 가운데서 神과 人間의 交涉이 이루어지면서 目的하는 바를 獲得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굿의 形態는 본풀이에 나타난 神의 性格으로 規定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濟州島 巫俗에서 본풀이의 研究는 ‘단골·심방·신’이 이루는 굿의 分析和 아울러 그들의 相互 關聯性을 밝히는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11) 濟州島에서는 巫樂器를 통틀어 ‘연물’이라고 하는데, 基本的인 것으로는 징·설채(쟁과리형태), 장고·북을 들 수 있다.

12) 徐大錫：“巫歌”，「韓國民俗大系」6卷. 高大民族文化研究所，1982. p. 475.

따라서 本研究의 첫째 目的은 兎山堂 本풀이가 갖는 文學的 特性을 分析함으로써 ① 本풀이의 構成的 特性 ② 變異의 樣相 ③ 本풀이의 文學的 意味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는 本풀이가 갖는 敘事文學的 性格과 口碑文學的 特性을 찾아내는 作業이 되기도 한다.

研究의 둘째 目的은 兎山堂神에 대한 여러 儀禮形式을 調査하고 그 중 一定의 形式에서 나타나는 '방울뿔'의 形態를 分析하여 本풀이와의 相關性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通하여 本풀이와 굿이 어떻게 密着·結合·關聯되었는 지를 糾明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巫俗은 非合理的이고 打破해야할 原始的 慣習의 所産이며, 迷信이라는 否定的 先入見 때문에 看過되어온 것이 사실이다.¹³⁾ 그렇지만 우리 文化의 基層을 探究하기 위해서는 오랜 歲月동안 이어져온 巫俗에 대한 理解가 불가피한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文學의 體系의인 研究를 위해서라도 敘事文學인 本풀이의 研究가 要求되는 것이다.

3. 研究方法과 資料

以上の 두가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첫째, 兎山堂 本풀이의 여러 異本들을 通해 構成的 特徵을 살피는 作業이 이루어져야 한다. 本풀이는 굿을 通해 享有했던 民衆들의 文學作品이다. 그런데 本풀이가 口碑文學의 作品이기 때문에 構成的 特徵을 살피는 作業은 口碑文學을 文學으로 研究하는 觀點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느 口碑文學 作品도 마찬가지로이지만, 兎山堂 本풀이는 時間과 空間을 달리하면서 여러 異本들을 形成시켜 놓았다. 이들 중에서 몇몇 先學의 研究成果에 힘입어 6개의 異本들만 研究對象으로 選擇했다. 그리고 이들 6개의 異本이 共有하고 있는 根幹構造로서의 構成要素가 兎山堂 本풀이의 構成的 特徵을 밝혀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들 根幹構造를 찾기위해 類型話素¹⁴⁾라는 概念을 導入했고, 이 概念을 異本

13) 徐大錫: "韓國巫歌의 研究", 1980, 文學思想社, p. 13.

14) 林在海: "說話의 現場論的 研究", 1986. 博士學位論文, 嶺南大學校 大學院, p. 27.

들에게 適用시켜 15個의 類型話素를 設定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밝혀진 根幹構造로서의 類型話素들은 쉽게 變異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特性을 갖기도 한다.

둘째, 兎山堂 본풀이의 變異樣相을 追跡했다. 基本的으로 본풀이가 口演되는 現場은 장고와 북 등의 巫樂器가 伴奏를 하고, 일정한 儀禮服을 입은 심방이 呪術的 行爲를 벌이는 祭場이어야 하는 特殊한 條件을 갖는다. 이때 심방은 굿의 對象神을 祭場으로 모시기 위해 본풀이를 唱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調査者의 要請에 의해 마련되는 人工條件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基本的으로 祭場이어야 하는 條件 속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傳承을 理解하기는 어려운 實情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時點에서 口演現場의 差異와 口演者의 差異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兎山堂 본풀이의 여러 異本들을 對象으로 變異의 樣相을 檢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方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登場人物들의 이름과 異本들 속에 나타나는 中心되는 地名을 그 對象으로 限定하고 이를 分析하고자 한다.

세째, 본풀이가 갖는 文學作品으로서의 意味를 밝히려 했다. 敘事文學이면서 神話인 본풀이의 主人公은 神이다. 그 神이 出生하여 神으로 坐定할 때까지의 來歷譚은 神의 性格을 밝히는 重要한 要素일 뿐만 아니라, 굿의 形態를 決定짓는 要素를 提供하기도 한다. 더우기이를 통해 본풀이의 性格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神의 行蹟을 追跡하여 그 意味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神의 性格은 굿을 원하는 단골에게 굿의 目的 對象神을 決定하는 主要한 端緒를 提供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네째, 兎山堂굿과 본풀이의 相關性을 分析했다. 본풀이와 관련된 儀禮의 分析은 '제일치기, 본향풀이, 공들이기'로 나타나는 堂굿의 3類型 중 祭儀過程을 說明하는 가장 特徵的인 儀禮形態로 나타나는 '방울품'이 본풀이와 어떻게 聯關을 맺고 있는지를 밝히는 일일 것이다. 이르기 위해서 '방울품'의 全過程을 자세히 記錄한 資料에 약간의 分析을 가했다.

굿이 神에 대한 儀禮이고, 본풀이가 그 神의 來歷譚인 以上 이들에 관한 研究는

바로 이들의 相互 關係 속에서 總體的인 接近(holistic approach)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以上の 研究를 위해서 使用할 資料는 兎山堂 본풀이의 6個 異本들과 兎山堂굿에 관한 것들이다. 오랜 期間동안 濟州島 巫俗研究에 關心을 경주해온 여러 先學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特히 많은 도움을 받은 業積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 A) 玄容駿, 1986, 「濟州島巫俗研究」, 集文堂
- B) 玄容駿, 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 C) 秦聖麒, 1968, 「韓國의 巫歌」, 濟州民俗文化研究所

A)는 濟州島 巫俗의 呪術·宗教的 本質을 밝히고, 주변 民族의 샤머니즘에 있어서의 位置를 糾명한 作業으로 現地調査를 통한 巫覡의 入巫動機, 成巫過程, 巫覡의 職能, 神靈의 神通, 性格, 巫儀形式, 테크닉, 巫具와 巫裝 등 濟州島 巫俗의 類型的 特徵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B)와 C)는 現地調査에 의한 본풀이의 採錄 資料集이라는 共通된 性格을 갖고 있다. 그러나 C)가 完全히 濟州島 方言에 의한 採錄이었으며, 또한 같은 본풀이를 提報者를 달리하면서 調査한 特徵을 지닌다면, B)는 蒐集한 資料를 方言으로 整理하고 여기에 標準語 脚註를 덧붙였다는 점과 巫俗宗教現象의 여러 측면을 辭典式으로 記述한 資料集이라는 特徵을 지닌다.

이와는 別途로 몇차례에 걸친 現地調査를 통해 資料를 蒐集했다. 調査地는 設村 歷史가 오랜 마을일 것이라고 推定되는 곳으로, 兎山 여드렛堂이 있는 兎山2里이다. 이 마을은 오래 前부터 蛇神崇拜의 聖所로 널리 알려진 마을이기도 하다. 이러한 理由는 堂굿의 對象神인 '토산한집'이 蛇神의 性格도 갖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는 오래전 設村과 더불어 생겨났을 堂과 그 堂에 모신 堂神에 대한 儀禮形態에 '방울뿔'이라는 過程이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에 특히 유의했다.

現地調査는 1차 : 1988. 8. 17~20, 2차 : 1988. 12. 6~10, 3차 : 1989. 7. 7~9, 4차 : 1989. 10. 8~11. 에 걸쳐 施行되었다. 堂굿의 類型, 祭儀過程의 形式, 각각의 形態 등

을 面接調査했고,¹⁵⁾ 곳에서 불러졌던 본풀이를 採録했다. 또한 祭場이 아닌 곳에서
곳의 顯現이 어려웠기 때문에, 본풀이와 의례와의 關聯性을 밝히기 위해서 高光敏
이¹⁶⁾ 撮影한 video資料도 함께 利用했음을 밝히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15) 調査에 대한 회의적인 觀念을 갖고 있는 부락민들을 對象으로 面接調査는 매우 어
러웠다. 그리고 面接에 응한 提報者들마저도 이름이 밝혀지길 원하지 않았다.

16) 濟州大 博物館 研究士(民俗學)

II. 濟州島 巫俗과 調查地 概觀

1. 濟州島 巫俗儀禮와 兎山堂굿

一般的으로 굿으로 나타나는 巫俗儀禮는 信仰民의 參席範圍, 行祭 巫覡의 差異, 祭場에 請하여 祈求事項을 들어주도록 祈願하는 對象神의 性格, 그리고 神聖空間인 祭儀場所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단골·심방·신'의 信仰 3要素가 수반되면서 이루어지는 巫俗儀禮인 굿을 좀 더 具體的으로 살펴볼 必要가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兎山堂굿이 가지는 位置를 糾明함으로써 그 굿과 본풀이를 對象으로 하는 本研究에서 基礎를 다지는 導入部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濟州島의 巫俗儀禮는 다음의 表1과 같이 단골 個人의 家庭굿과 部落民 共同的 堂 굿¹⁷⁾으로 나누어 比較·整理할 수 있을 것이다.

〈表1〉 濟州島 巫俗儀禮

區 分	信仰 3要素			分 類	規 模	祭 場	祭 日
	단 골	심 방	신				
가 정 굿	個 人	심 방	一 般 神 祖 上 神	큰 굿 작은 굿 앉은 굿	열두석 여섯석 세 석	堂이외의 곳	수 시
당 굿	部 落 民	매인심방	堂 神	제일치기 본향풀이 공들이기	여섯석 여섯석 세 석	堂	一 定 한 祭 日

17) 濟州道 : 「濟州道誌」(下), 1982, 濟州道, pp. 929-961.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家庭굿은 一般家庭에서 自然 및 人間生活의 一般的인 事象을 管掌하고 支配하는 一般神¹⁸⁾ 과 어떤 氏族이나 그 氏族의 一部인 한 집안을 守護해 주는 조상神¹⁹⁾을 請해 모셔서 目的하는 바를 들어주도록 祈願하는 巫俗儀禮를 말한다. 보통 祭主의 家庭에서 儀禮가 行해지나, 祭主가 願하면 堂이 아닌 海邊이나 들판 등에서도 行祭되기도 한다. 이 굿은 規模에 따라 큰굿²⁰⁾·작은굿²¹⁾·앉은굿²²⁾으로 나누어지는 데, 이는 家庭形便이나 굿의 目的을 고려해 決定하며, 祭日은 擇日士에 의뢰해 정한다. 堂굿과 區分되는 特徵으로는 一般 家庭의 祭主(個人)가 굿의 規模에 따라 심방을 選定하고, 굿의 目的에 따라 對象神을 請해 祈願한다는데 있다.

이와는 달리 堂굿을 自然部落마다 그 部落을 管掌하고 守護해 주고 있는 本鄉堂神이나 一定한 職能을 갖고 있는 職能堂神에 對해 그 部落의 部落民 共同이 堂神의 常住處인 堂에서 定期祭日에 年例的 行事로 行하는 巫俗儀禮와 그 堂神에 對해 ‘단골’이 家庭에서 行하는 巫俗儀禮를 말한다. 이 굿은 機會와 場所에 따라 ‘제일치기·본향풀이·공들이기’로 나눌 수 있다. 一定한 祭日에 堂에서 年例的 行事로 마을민 모두가 參席해 行하는 굿을 ‘제일치기’, 疾病退治를 위해 一定한 職能의 堂神의 堂에서 部落民 중의 한 個人이 行하는 굿을 ‘공들이기’라 한다. ‘본향풀이’는 단골의 家庭에서 굿을 할 경우 堂神을 請해 모시고 行하는 巫俗儀禮를 말한다. 堂굿이 家庭굿

- 18) 天地·日月·山海·生死·疾病·農耕·漁撈·貧富 등을 관장하는 神으로 全島의 으로 共通인 神이다.
- 19) 血緣祖上을 이르는 것은 아니나, 血緣祖上의 직업이나 어떤 血緣과 일정한 계기가 되어 崇拜하기 시작하여 모시게 된 神을 말한다.
- 20) 큰굿은 4~5명의 심방에 의해 3, 4일에 걸쳐 行祭되는데, 이때 모든 巫神에 대하여 必要한 모든 巫儀를 연속적으로 해나가는 일종의 綜合儀禮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21) 작은굿은 몇명의 심방에 의해 行祭되기는 하나 큰굿보다는 작은 규모로 하루만에 끝나는 單獨儀禮를 이른다.
- 22) 앉은굿은 祭床의 排設을 小規模로 하고 심방 1인이 요령만 들고 앉아 行祭하는 굿으로 1時間 内外로 끝나는 儀禮를 말한다.

과 區分되는 特徵은 堂神에 對한 儀禮로 ‘매인심방²³⁾’에 依賴해 行하는 곳이라는데 있다.

이러한 堂곳에서는 請하여 모시는 堂神의 來歷을 밝히는 本풀이가 반드시 口演되며, 아울러 呪術의 行爲가 베풀어진다. 이러한 것 또한 곳마다 달리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심방에 의해 불려지는 本풀이는 그 곳의 對象神에 대한 來歷을 밝히는 것이므로 물론 神話이며, 그 來歷 즉 出生에서 坐定에 이르는 동안 神의 行蹟이 事件展開의 構成을 보이므로 叙事文學이기도 하다.

그러나 심방이 곳을 할 때 부르는 노래가 全部 本풀이인 것은 아니다. 곳은 무수한 말과 노래·行爲가 어우러져 이루어지는데, 本풀이는 이들 속에 포함되는 한 부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꼭히 불려지는 것으로, 이들을 통틀어 巫歌라 할 수 있다. 濟州島의 巫俗儀禮에서는 다른 地域보다도 많은 巫歌가 傳承되고 있다. 이는 濟州島의 巫俗儀禮인 곳이 島民들의 生活과 密接한 關係를 맺으면서 盛行했는데에 原因이 있다고 본다. 이들 巫歌의 特色으로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叙事巫歌인 本풀이가 發達해 있다는 點이고 또 하나는 戲曲巫歌가 많다는 點이다.²⁴⁾

戲曲巫歌는 곳에서 神과 人間의 媒介者인 심방들이 곳의 目的을 成就하기 위하여 模擬的 行爲를 呪術의 行爲로 行하며 하는 臺詞와 노래를 말한다. 보통 演劇의 形式으로 展開되는 ‘놀이곳²⁵⁾’에서 불려지는데, 祭場에서 심방이 神을 請하면 神으로 分裝한 소미들이 登場하여 곳을 進行해 가는데, 이때 노래가 불려지기도 하고, 대화가 나뉘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濟州島의 巫俗儀禮인 곳을 簡略하게 概觀해 보았다. 이로써 兎山堂곳의

23) 一定한 堂神에 대한 巫儀를 전달하여 집행하는 전속巫를 말한다.

24) 玄容駿 : Ibid, p. 216.

25) 玄容駿(1976. 93-118)은 濟州島 巫俗儀禮를 形式的인 面에서 ① 基本形式儀禮 ② 迎神儀禮 ③ 聖劇儀禮 ④ 기타儀禮로 分類한 바 있다. 이때 ‘놀이곳’은 ④ 聖劇儀禮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영감놀이’, ‘세경놀이’, ‘전상놀이’가 있다.

位置를 糾明할 수 있는데, 兎山堂곳이란 兎山2리에 位置한 兎山堂에 常住하고 있는 堂神에 대한 巫俗儀禮로, 단골인 信仰民들이 共同으로나 個人的으로 堂이나 家庭에서 行하는 굿을 말한다. 이 곳에는 반드시 叙事巫歌인 本풀이가 口演되며 一定한 形態의 行爲가 同伴된다.

本研究의 目的인 本풀이의 分析과 굿과의 相關性 分析은 Ⅲ·Ⅳ章에서 다루기로 하고, 먼저 兎山堂神이 坐定하고 있으면서 信仰되고 있는 兎山2리에 對해 살펴보고자 한다.

2. 調査地 概觀

1) 一般環境

調査地인 兎山 마을은 西歸浦市에서 東回線을 따라 東쪽으로 20km 정도, 濟州市에서 72km 支店에 位置한 곳으로 行政區域上으론 濟州道 南濟州郡 表善面 兎山2里라고 하는 自然部落이다. 西歸浦市에서 이 마을까지는 現在 15分 間격의 直행버스로 30分 정도 所要되어야 到着할 수 있는 곳이다. 兎山 마을은 1·2리로 나누어지는데, 1943年 行政區域이 改編되기 前까지는 東中面에 속해 있던 마을로 1里 地域은 '웃토산' 2里 地域은 '알토산'으로 불렸으며, 또 北兎山·南兎山으로 區分해 불려지기도 했다.

웃토산과 알토산 사이에는 '토케오름'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중턱에 샘물이 2곳이나 있다. 하나는 漢拏山 쪽으로 흘러가고, 하나는 바다 쪽으로 흘러내리는데, 前者를 '거슨샘이', 後者를 '늑단샘이'라고 부른다.²⁶⁾ 물이 귀한 濟州에서 물이 좋기로 所聞이 난 곳이 兎山이다. 위의 두 샘물 말고도 흐르는 물인 내¹⁷⁾가 있고 바닷가

26) '거슨샘이'란 한라산 쪽으로 거슬러 흐르는 샘이라는 데서 온 말이고, '늑단샘이'란 오른쪽으로 흐르는 샘이라는 데서 온 말이다(정시 金○○氏談)

27) 松川이라는 乾川이 마을을 境界지우며 흐르고 있다.

에 또 산물²⁸⁾이 있다. 올해 79歲인 정시²⁹⁾ 金○○氏는 ‘兎山은 물이 좋아 오래 전에 생긴 마을이었어’라고 推測하여 傳해 준다.

兎山 마을의 歷史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里事務所의 現況版에 根據하면 지금 부터 약 千餘年 前에 耽羅王朝의 一派인 夫氏가 設村했다고 한다. 歷史가 오랄 것이라는 또 하나의 根據로는 全島的인 分布를 보이며, 全國的으로 나타나는 風水說話 ‘고종달’의 이야기에도 나타난다.³⁰⁾ 더우기, 오랜 歷史를 가진 마을임에도 지금은 表善面 6個里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4·3事件 당시 마을의 男子(18歲 이상 40歲 미만) 157名이 공비와 內通한 罪로 沒殺³¹⁾을 당했기 때문에 마을은 發展을 멈춰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그 당시의 마을 모습보다 못하다고 한다.³²⁾

마을의 名稱이 兎山이 된 것은 마을 西쪽에 있는 ‘절려가름’의 地形이 토끼와 비슷한데서 緣由한 것이다.³³⁾ 舊韓國時代에는 軍事的 要衝地로 마을 가운데 있는 兎山峰에 烽燧臺가 세워지기도 했다. 城邑에 縣廳이 옮겨지기 前인 그 보다 훨씬 이전에 이곳 兎山에 縣廳이 옮겨졌다가 다시 城邑으로 옮겼다고도 한다.³⁴⁾

28) 바닷가에 위치한 용천수가 솟아나는 우물을 말한다.

29) 정시는 移徙, 移葬, 埋葬, 祭日……등 무슨 일을 할려고 할때 擇日을 해주는 擇日士를 이룬 濟州島 方言이다. 提報者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을 마을 生活을 고려한 提報者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30) 玄吉彦: “風水(斷脈)說話에 대한 一考察” 「韓國文化人類學」10集, 韓國文化人類學會, 1978. pp. 43-55.

31) 前 里長, 金勇男은 몰살당한 이들 157名 全部가 兎山2里의 男子가 아니라 兎山1里에서 피난온 양민의 男子數를 합한 것이라고 한다.

32) 그 당시 키가 작은 것을 이용해 나이를 속여 생존하게 된 金○○氏의 이야기를 근거로 했다.

33) 秦聖麒: 南國의 地名由來, 1975, 濟州民俗研究所, p. 98.

34) 이 근거로 마을 사람들은 밭지경의 명칭이 ‘옥밭’, ‘당나무밭’…… 등으로 불리며 그 일대를 옛마을이라는 뜻의 ‘무근가름’이라고 지금도 불린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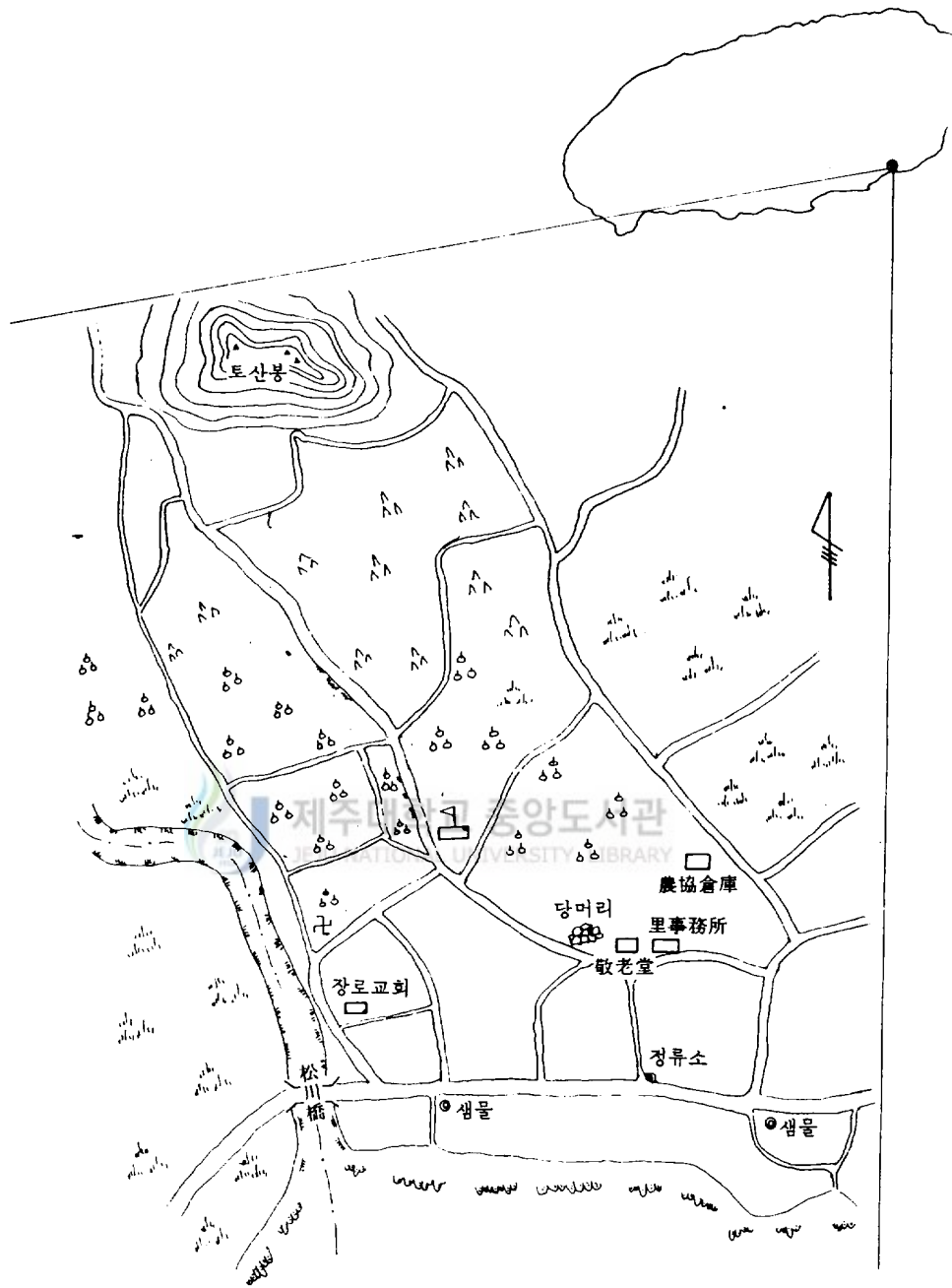


圖1. 調査地 地圖

現在 兎山2里에는 197戶에 男子 393名, 女子 397名이 살고 있다.³⁵⁾ 특히 血緣的 集團을 의미하는 '방상'이 3곳이나 있기도 하다. 마을이 表善에서 8km 정도의 位置에 있으므로 場은 주로 表善場을 利用하나, 큰장을 봐야할 때는 西歸浦場이나 濟州市場을³⁶⁾ 보기도 한다. 南元邑 新興과 연결되는 境界쪽에는 1938년에 完成을 본 松川 橋가 놓여있는데, 일명 '토산다리'라 일컬어 오는 것이다.

이곳의 年中 平均氣溫은 15.6℃를 나타내며 8月 平均氣溫은 26.6℃이고, 1月 平均氣溫은 6℃에 달하며 韓國最高이 氣溫現象을 보이고 있다. 이는 緯度에 따른 氣溫의 南北差를 잘 나타내주는 現象으로 1年을 通해 南高北低의 氣溫分布를 顯저히 보여 주고 있다. 降雨量은 年平均 1,688mm에 달하여 韓國最多雨地의 性格을 안고 있다. 이는 바다로 둘러 싸인 島嶼的 環境과 漢拏山에 의한 氣流의 風上地域에 降雨量이 많아지는 事實과 關聯이 있다. 平均 降水日은 130日에 달해 3日에 하루는 비가 오고, 雲天日까지 합치면 快晴日은 65日에 지나지 않는 濕地이다.³⁷⁾ 이는 이른 봄부터 늦 가을까지 어디를 가나 뱀을 볼 수 있는 自然的 環境을 잘 나타내주는 證據이기도 하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農業에 從事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비오는 날이 아니면 나 이든 마을 사람들은 거의 만날 수 없었다. 자기의 農耕地를 가지고 있든·없든 간에

35) 1987년 '인구 sences' 통계자료로 里事務所에 비치된 자료를 참고했다.

36)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제주도의 5일장은 지역마다 균형을 이루며 행해졌는데, 이는 옛날 제주도의 상권을 추측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행동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1. 6일장 : 삼양, 성읍, 대정

2. 7일장 : 제주시, 의귀, 표선

3. 8일장 : 조천, 하효, 애월

4. 9일장 : 김녕, 도순, 서귀포시

5. 10일장 : 하도, 고성, 창천

37) 南濟州郡 : 南濟州郡誌, 1986. 南濟州郡, pp. 60-62의 기상관계항을 참조했다. 이 통계는 南濟州郡 全地域에 포함되는 資料이다.

部落民 거의 모두는 農事일에 매달려 살고 있는 實情이다. 오늘날은 감귤밭이 全農耕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마을 所得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勞動力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形便이다.³⁸⁾ 그밖에 特用作物로 6~7年 前부터 始作해 온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이 있고, 소수이나 一般作物로 콩과 유채를 栽培하기도 한다.

감귤이나 바나나 등이 栽培되기 前에는 濟州島의 여느 마을과 같이, 5月이면 조를 播種하고 10月이면 보리를 뿌려, 이들을 主穀으로 生産했다고 한다. 그리고 바다와 隣接한 마을이지만 배라곤 작은 動力船 2대가 고작이어서 가끔씩 자리·오징어·갈치 등을 잡을 뿐이며, 漁村契 會員 50餘名이 ‘잠수질³⁹⁾’을 하는 것이 漁撈行爲의 거의 全部이다.

全般的으로 兎山2里 마을 사람들은 農業에 從事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⁴⁰⁾ 바나나·파인애플·감귤 등의 高所得作物을 栽培함으로써 다른 마을보다는 사는 形便이 좋다고⁴¹⁾ 할 수 있다.

2) 信仰環境

調査地의 信仰環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信者들이 禮拜를 드리기 위해 모일 수 있는 場所인 禮拜堂을 가진 宗教를 살펴보았다. 가장 오래 전부터 이곳에 있어 온 것은 太古宗의 佛敎 寺刹이었다. 部落民 30% 정도가 信者로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리 規模가 큰 寺刹은 아니었으며, 信者들도 四月初八日 정도에나 찾는 곳으로 認識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15年 前에 세워진 基督教系統의 兎山敎會가 있다. 部落

38) 농(勞動力)을 팔고 살아가는 기구만도 40戶에 달한다.

39) 해녀작업

40) 食堂 2, 슈퍼마켓 1, 작은가게 1, 도합 4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농사일을 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41) 年平均 農家所得이 一千萬원 정도로 잘 사는 마을에 속한다. 그러나 貧富의 差가 심한 편이다.

민 10% 정도가 信徒로 登錄해 있으며, 信徒層은 주로 中·高等 學生들이었다. 이는 비가 오지 않으면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農事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얼마 前보다는 信徒數가 늘어나고 있는 傾向이라고 한다. 또 禮拜堂을 갖고 있는 宗教로는 天地大安教라는 新興宗教가 있는데, 信徒數가 基督教보다 조금 많은 마을민 10%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表로 나타내면 다음 表2와 같다.

<表2> 兎山2里의 宗教分布⁴²⁾

計	佛 教	基 督 教	天地大安教	備 考
50%	30%	10%	10%	2명

現在 兎山 마을에는 790名이 살고 있는데, 이 중 395名이 宗教를 가진 것이고 그 나머지는 無宗教人으로 民間信仰層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⁴³⁾ 지금부터 3, 40年前인, 1960年 초반 무렵만 하더라도, 마을에는 굿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다고 한다. 어떤 마을 사람은 그 당시 집안 사람이 몸이 아플 때는 물론이고, 祖上의 뒹자리가 나빠 移葬을 해야할 때에조차도 굿을 했다고 한다. 살아가기조차 어려웠던 때였는데, 큰굿을 한 번 하면 집안 살림이 휘청거렸다고 한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始作되면서부터 展開된 '迷信打破運動'의 影響으로, 마을의 굿도 차츰 사라지기 始作했다고 한다. 지금은 한 분의 심방⁴⁴⁾이 굿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바뀌었으며, 産業化의 影響으로 生業環境이 변했듯이 굿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렸다.

42) 里事務所 資料를 整理한 것임

43) 玄容駿(1986. 3. 3)은 基督教 系統의 信者들은 巫俗을 완전히 迷信시하지만 佛教나 기타 新興宗教의 信者들은 巫俗이나 儒教式 儀禮를 迷信시 하지 않고 수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兎山2里의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民間信仰層임을 알 수 있다.

44) 세화리에서 태어나 이곳에 정착한 玄○○氏로 1명 뿐이었다.

Ⅲ. 兎山堂 본풀이의 構成과 變異

곳에서 심방에 의해 불려지는 叙事巫歌인 본풀이는 神의 來歷譚인 동시에 그것을 唱하고 祝願하는 祭次의 이름이다. '본풀이'라는 말의 '본'은 根本·本源 등의 뜻이고, '풀이'는 '풀다'의 전성명사로서 解釋·說明 정도의 意味로, 결국 '본풀이'라는 말은 神의 根本來歷·行蹟 등을 解釋·說明하는 神聖한 說話라는 뜻이다.⁴⁵⁾ 이러한 본풀이는 그 神의 性格에 따라 一般神本풀이·堂神本풀이·조상神本풀이로 나뉜다.

一般神本풀이는 一般的인 自然事象이나 人文事象을 차지하고 있는 神들의 來歷을 說明하고 있는 神話다. 앞에서 살펴본 一般神처럼 全島 어디에서나 불려지는데, 그 代表的인 것으로 천지왕본풀이,⁴⁶⁾ 초공본풀이,⁴⁷⁾ 이공본풀이⁴⁸⁾ 삼공본풀이,⁴⁹⁾ 삼승할망본풀이,⁵⁰⁾ 세경본풀이,⁵¹⁾ 문전본풀이,⁵²⁾ 칠성본풀이⁵³⁾ 등이 있다.

45) 玄容駿 : 濟州島 巫俗資料事典, 1980. 新丘文化社, pp. 874-875.

46) 天地開闢 당시 하늘의 천지왕이 地上의 총맹부인과 베필을 맺고 대별왕·소별왕을 낳았는데 이 형제가 각각 저승과 이승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내용, 큰곳의 초감제 때 불린다.

47) 중의 자식으로 異常出生한 형제가 중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양반들 때문에 과거에 낙방당하자 3형제는 양반에 대해 복수하는 한편, 어머니를 살려내기 위하여 갖는 법을 처음 시작했다는 내용. 무조신(巫祖神)의 生活史를 노래하고 기원하는 신화.

48) 서천 꽃밭의 呪花管掌神 '이공'의 내력을 설명한 神話

49) '전상' 차지 神 '삼공'의 내력을 설명한 神話, '전상'이란 평상시와는 달리 마구 술을 먹거나 망측한 짓을 하여 가산을 탕진하게 하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을 말한다.

50) 產育神인 삼승할망의 내력을 설명한 神話

51) 農畜管掌神 '세경'의 내력을 설명한 神話

52) 門神과 그의 처인 조왕, 아들 7형제, 그리고 첩인 변소의 神간의 이야기로서 繼母譚으로 되어 있다.

53) 蛇神인 칠성의 내력을 설명한 神話

堂神본풀이는 ‘당본초’ 또는 ‘당본’이라고도 하는데, 堂내지 그 堂神의 來歷을 說明하는 神話다. 각 部落의 堂은 그 部落의 歷史만큼이나 다른데, 그 堂神의 來歷도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심방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데에서 먼 곳에 있는 堂神본풀이는 잘 모르는 편이다.⁵⁴⁾ 이는 더군다나 堂神의 數가 堂의 數⁵⁵⁾만큼이나 많은데도 原因이 있다고 하겠다.

조상神본풀이는 한 집안 내지 한 氏族의 守護神의 來歷에 關해 說明한 神話を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조상神은 집안 또는 氏族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또 그 집안의 血緣祖上들의 職業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본풀이는 대개 ‘오래전 옛날에……’ 하는 식으로 始作하여 主人公인 神의 出生·成長·苦行·結緣 등 파란많은 삶의 逆境을 그려 나가고, 끝에 가서 神으로서의 職能을 차지하는 過程과 坐定해 神으로 待接받는 것으로 結末이 이루어진다.⁵⁶⁾ 이처럼 본풀이의 內容은 神이 神으로서 坐定하게 된 來歷을 說明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면서 그 過程의 生活을 善惡의 葛藤으로 高調시켜 善의 勝利로 풀어 나가기 일쑤다. 이러한 內容 중에는 兩班에 對한 反抗이나 諷刺가 있고, 繼母의 非行을 懲戒하는 것도 있다. 또 善行이나 貞節을 勸獎하는 內容도 있으며 崇佛 崇巫思想을 鼓吹하는 것도 있다. 더군다나 歷史的인 事實을 固定시켜 담고 있기도 하다.⁵⁷⁾ 이러한 가운데에서 自然事象이나 人文事象들의 起源을 說明하고, 道德的 規律이나 慣習·祭儀 등의 原理·合理性·正當性을 插入시켜 說明해 나가는 것이다.⁵⁸⁾

本章에서 다룰 主資料는 兎山堂神인 ‘토산한집’ 혹은 ‘여드레한집’에 關한 來歷譚

54) 각 자연부락에 있는 堂神에 대한 儀禮가 한 명의 ‘매인심방’에 의해 행해지는데도 原因이 있다.

55) 玄容駿(1980. 863)은 300개, 秦聖麒(1968. 7)는 251개로 보고한 바 있다.

56) 玄容駿 : Ibid, p. 875.

57) 兎山堂 본풀이에서 나타나는 ‘왜구의 침입’과 같은 것을 말한다.

58) 玄容駿 : Ibid, p. 876.

이다. 지금까지 이 神은 蛇神으로 널리 알려진 神이며, 그 덕택으로 많은 이의 關心의 對象이 되었다. 이 때문에 다른 性格의 堂神들보다 오래 전부터 많은 記錄과 研究의 結果⁵⁹⁾를 가져왔다. 특히 兪山堂神을 指稱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濟州島의 蛇神崇拜에 관한 記錄은 朝鮮王朝 初期에 벌써 나타난다. 1481년에 編纂된 東國輿地勝覽⁶⁰⁾에 “이 地方에는 뱀·독사·지네가 많은데 혹시 灰色 뱀을 보면 遮歸의 神이라 하여 禁하여 죽이지 않는다”⁶¹⁾라는 記錄이 보인다. 그리고 濟州風土錄⁶²⁾·南槎錄⁶³⁾·耽羅誌⁶⁴⁾·耽羅紀年⁶⁵⁾ 등 濟州 關係의 古文獻에도 뱀과 蛇神崇拜에 관해 叙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로 15.6세기 이전부터 濟州島에는 蛇神崇拜라는 形態의 信仰이 存在했었음을 確認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存在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巫俗의 形態를 지녔을 것이라고 推測하는 데는

-
- 59) 秋葉隆：“朝鮮民俗誌”，1954，六三書院
 玄容駿：“濟州島 토산당굿”，1966. 文化財管理局
 卓明煥：“濟州蛇神信仰에 對한 小考”，「韓國文化人類學」10集，1978. 韓國文化人類學會，pp. 71-78.
 秦聖麒：“濟州島의 뱀 信仰”，「韓國文化人類學」10集，1978，韓國文化人類學會，pp. 110-123.
 高光敏：“濟州島 處女堂 本풀이 研究”，碩士學位論文，濟州大學校 大學院，1982.
 이기욱：“제주도 사신승배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1989，제주도연구회 발표회 유인물.
- 60) 성종 17년(1486)에 발간한 지리서
- 61) 又地多蛇 虺蛇蛇 若見灰色蛇 則爲遮歸之神 禁不殺
- 62) 冲菴 金淨(1486~1521)：吾舊聞 此地蛇甚繁天欲雨蛇頭駢出 城縫數四云者(中略) 但蛇 多於陸上 而已意 亦士人崇奉之過耳
- 63) 淸陰 金尙憲(1570~1652)：今則崇奉蛇神之風 不此昔時尤甚
- 64) 瓶窩 李衡祥(?-1733)：地多蛇 蜈蚣 苦見灰色蛇 則以 爲遮歸之神 禁不殺風
- 65) 金錫翼：大靜山房山路邊 有淫祠曰廣靜堂 過者不下馬則馬蹇 李衡祥 巡行至此 吏白 下馬不聽馬果 蹇踟 衡祥親到其堂 使巫刑馬以祭 求見其神 妖 出現毒嚙 司命旗竿 遂 軒之 燒其堂 自此淫祠遂絕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聖所로 알려진 兎山堂의 巫俗儀禮에 관한 本研究에 오랜 歷史를 지닌 堂굿을 밝힌다는 또 하나의 意義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神에 대한 儀禮는 一般 堂굿처럼 ‘제일치기·본향풀이·공들이기’의 3類型으로 存在한다. 물론 이들 곳에는 兎山堂神에 대한 본풀이가 口演된다. 그렇지만 儀禮를 行祭하는 심방의 差異나, 곳의 差異에 따라 여러 異本이 나타난다. 따라서 兎山堂 본풀이가 갖는 構成的 特徵과 變異樣相, 文學的인 意味를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異本을 分析해야만 한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그동안 몇몇 先學에 의해 蒐集된 다음과 같은 6個의 異本을 資料로 使用하고자 한다. 이들은 모두 濟州島 方言으로 記錄된 것임을 아울러 밝힌다.

<表3> 兎山堂 본풀이의 異本資料

順番	提 報 者	調 査 者	發 表 誌	發表年度
A	濟州市 男巫 安仕仁	玄 容 駿	濟州島 토산당굿	1966
B	細花里 女巫 조산옥	秦 聖 麒	南國의 巫歌	1968
C	西歸浦市 男巫 박생옥	秦 聖 麒	南國의 巫歌	1968
D	中文里 男巫 강만원	秦 聖 麒	南國의 巫歌	1968
E	城邑里 男巫 韓完平	玄 容 駿	濟州島 巫俗資料事典	1980
F	表善里 女巫 洪○○	金 東 燮	未發表	—

이밖에 秋葉隆이 調査하여 採録한 異本⁶⁶⁾과 文貞奉이 옮겨 적은 異本⁶⁷⁾이 있으나 本研究에서는 參考資料로 利用하고자 한다.

1. 兎山堂 본풀이의 構成的 特徵

兎山堂 본풀이의 構成的 特徵을 밝히는 作業은 먼저 異本들을 比較·檢討할 수 있는 分析의 틀을 마련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 文學作品을 分析하는데 있어 그 틀로 주로 利用해 온 것이 話素이다. 그러나 그 概念이 學者들의 觀點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에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⁶⁸⁾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林在海가 現場論的 觀點에서 定義한 話素의 概念을 따르고, 그 上位의 概念으로 '類型話素'를 分析의 틀로 삼고자 한다. 林在海는 話素를 "이야기의 즐거리를 合成하고 分析할 수 있는 單位로서, 이야기의 生成·傳承·變異에 一定的한 機能을 發揮하는 說話의 작은 要素"라고 定義하고, 이러한 話素가 각각 合成과 機能을 함으로써 달리 나타난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러한 話素 중에서 上位概念으로 類型話素를 設定했는데 이는 '類型을 決定하고 類型的 變異를 낳게 할 뿐만 아니라 類型 次源의 主題를 表出해 주는 것'이라고 說明한다.⁶⁹⁾

兎山堂 본풀이가 堂神에 對한 來歷譚인 만큼, 그 內容이 神의 出生에서부터 坐定에 이르기까지의 一聯의 事件展開로 構成되어 있음을 前提할 수 있다. 이러한 前提에서 앞의 6個의 異本을 살펴보면 15個의 類型話素가 設定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을 基準으로 각각의 異本들을 比較·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66) 秋葉隆: "朝鮮民俗誌", 1954. 六三書院

67) 文貞奉: "風俗巫音" 祝詞文, 1945. 書寫本

68) 林在海: 說話의 現場論的 研究. 1986. 博士學位論文, 嶺南大學校 大學院, pp. 27-28.

69) 林在海: Ibid, p. 27.

1) 神은 羅州 靈山이 本據地다.

이 類型話素는 본풀이의 開始部에 해당하는 것으로, 神의 出處를 밝히고 있다. D本을 제외한 5個의 異本에 共히 나타나기는 하나, 異本에 따라서는 羅州 錦城山만 나타나기도 하고, '절집(神堂?)이 있다'라고만 표현한 것도 있다.

- A. 羅州 錦城山에 靈氣와 魂靈이 세어졌다.
- B. 羅州 錦城山에 절집이 있다.
- C. 羅州 錦城山에 신전님이怒하셨다.
- E. 神이 羅州 靈山 錦城山에서 솟아났다.
- F. 羅州 靈山 錦城山이 죽 구부러져 있다.

神의 出處가 羅州임을 밝히는 것은 穀倉地帶였던 羅州의 性格을 나타내 보이면서, 兎山에 坐定한 神이 곧 富神的 性格을 갖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2) 赴任하는 牧使마다 자꾸 罷職되어 올 사람이 없다.

羅州 靈山 錦城山에 坐定한 神(羅州의 土地官=本鄉神?)의 靈氣 때문에 羅州에 赴任하는 牧使(異本에 따라서는 절집을 지키는 刑房·吏房)는 석 달 열흘 100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거나 封庫罷職된다. 이 類型話素도 D本을 除外하고 모든 異本에 나타난다.

- A. 羅州 牧使는 죽거나 살거나 석달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封庫罷職된다.
- B. 절집에 살던 康氏刑房·韓氏吏房이 석 달 열흘을 살다가 罷職된다.
- C. 羅州 牧使가 赴任하기만 하면 죽는다는 所聞이 난다.
- E. 羅州 牧使로 오면 석 달 열흘 안에 封庫罷職된다.
- F. 두 번이나 牧使가 羅州 靈山 錦城山의 靈氣 때문에 석 달을 살면 돌아가지 못

하고 죽는다.

神의 靈氣가 너무 強하기 때문에 封庫罷職을 당하거나 죽어야만 했다. 이러한 所聞은 赴任을 拒否하는 소동으로 나타나며, 爲政者들의 걱정은 늘어만 간다. 支配할 수 없는 능력은 除去해야만 하는 支配論理로 평범하지 않는 偉人이 나타남을 暗示하는 類型話素다. 반면에 追放당해하 할만큼 靈氣가 센 神이었음도 보여주기도 한다.

3) 牧使가 下馬를 拒否하자 말 발이 절어온다.

조정의 걱정은 羅州 牧使를 구한다는 방으로 나뉘고 羅州 牧使를 自願한 사람은 임금의 허락으로 羅州에 赴任하다. 任地인 羅州에 赴任하는 길에(異本에 따라서는 巡歷을 돌러는 때 혹은 靈氣를 確認하기 위해) 錦城山을 지나는 도중에 妓童通引(異本에 따라서는 문집대감)이 下馬를 권고한다. 그러나 牧使는 이를 拒否한다. 그러자 말 발이 절어온다.

- A. 自願한 牧使는 여러 명의 下吏를 만류하고 單身으로 錦城山에 오르는데, 妓童通引이 下馬를 권고하나 이를 듣지 않고 지나간다. 그러나 곧 말 발이 절어오면서 자욱하게 안개가 드리운다.
- B. 刑房·吏房을 自願한 사람이 下馬를 얹고 산에 오르나 곧 말 발이 절어온다.
- C. 自願한 牧使가 羅州에 到着하여 下馬를 하지 않고 있으니 말 발이 절어왔다. 그리고는 하늘이 안개로 자욱해진다.
- D. 羅州 牧使가 巡歷을 도는 도중에 권고하는 下馬를 拒否한다. 그러자 곧 말 발이 절어오면서 하늘이 안개로 흐려졌다.
- E. 自願한 牧使가 靈氣를 確認하기 위해 六房下人을 거느리고 올라 가는 도중에 下馬를 권고한다. 그러나 이를 拒否하고 얼마 가지 못해 말 발이 절어온다.
- F. 自願한 牧使가 羅州 靈山에 들어갈 때 문집대감이 下馬를 권고하나 듣지 않

고 山頂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말 발이 절어온다.

羅州의 土地官이면서 民衆의 信奉者였던 錦城山의 神을 牧使는 認定하지 않는다. 그러자 곧 靈及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支配者인 牧使는 이것조차 認定하지 않는다.

4) 처녀로 나타났던 神이 큰뱀으로 다시 나타난다.

民衆들의 信奉를 받는 土地官인 神은 아름다운 美女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천구아구대맹이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의주도 물지 않고 있는 보잘것 없는 것으로 격하된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 牧使는 굿도 하고 정법도 외운다.

- A. 안개 속의 청기와 외기둥집에는 고운 처녀가 머리를 빗고 있었다. 본 모습을 보기위해 牧使는 巫女를 불러 굿을 하게 한다. 그러자 큰뱀으로 나타난다.
- B. 아름다운 美女가 보이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던 牧使가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 큰뱀으로 變해 있었다.
- C. 안개 속으로 네 귀에 풍경달린 커다란 청기와 외기둥집이 보이다가 굿을 하니 여러 마리의 용과 뱀이 나타났다. 그리고는 잠시 후 커다란 뱀만이 보였다.
- D. 牧使는 정법을 외워 안개를 걷히게 하였고, 다시 굿을 하게 하니 큰 뱀이 나타났다.
- E. 仙女같은 아가씨가 뱀으로 변했다.
- F. 仙女같은 애기씨가 머리가 9개, 10개로 변하는 뱀으로 변했다.

지금까지 赴任하는 牧使를 罷職시킬 만큼 靈氣센 土地官으로 奉祭받던 神을 좇아 보낼 수 있는 論理를 마련한 類型話素다. 羅州 錦城山의 神은 보잘것 없이 아가리만 큰(F本에서는 머리가 9개, 10개로 변하는) 뱀으로 格下된다.

이 神이 굳이 뱀으로 나타난 理由를 찾는다면 穀倉地帶인 羅州의 神이 富神의 性

格을 지녔기에 全國적으로 나타나는 家神信仰의 富神인 ‘업⁷⁰⁾’과 關聯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兎山堂神에 대한 儀禮가 뱀이 많은 濟州島의 自然的 環境과 接合됨으로서 넓은 信仰圈을 형성했으리라 생각한다.

5) 神인 뱀은 다시 금바둑·옥바둑으로 變身해 피한다.

보잘것 없이 아가리만 큰 뱀으로 格下된 神(=土地官: 牧使는 三年을 살면 떠나지만 羅州 錦城山의 神은 數代를 奉祭받던 土地官이었다)은 牧使에 의해 불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神은 다시 금바둑·옥바둑으로 變色하는 것으로 變身해 종로 네거리(異本들에는 羅州 길바닥, 백물곶거리)에 떨어진다.

- A. 뱀에게 불을 놓으니 금바둑 옥바둑으로 變色하는 바둑돌로 變身해 종로 네거리에 떨어진다.
- B. 뱀에게 불을 붙이니 신기한 바둑돌로 변해 羅州 길바닥에 떨어진다.
- C. 뱀에게 불을 놓으니 한집은 금바둑, 늦인득이 정하님은 옥바둑으로 遷生하여 羅州 길에 떨어진다. 그리고 다시 백물곶 거리에 떨어졌다가 종로 네거리로 또 옮겨온다.
- D. 뱀에게 불을 놓으나 백물곶 거리에 떨어져 옥바둑 금바둑으로 遷生한다.
- E. 神堂에 불을 지르니 神은 금바둑 옥바둑 은바둑으로 變色하여 행기포⁷¹⁾에 싸여 종로 네거리에 떨어진다.
- F. 神堂 네모퉁이에 불을 지르니 神은 금바둑으로 遷生하여 종로 네거리에 떨어진다.

이 類型話素도 전체 異本에 나타난다. 羅州 錦城山에서 追放된 神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로 네거리, 羅州 길, 浦口 등으로 날아가 다른 坐定處를 찾고자 한다. 그리고 神은 信仰民들에게 위함을 받아야하는 存在로 단골을 選定하는 段階이기도

70) 마루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 뱀이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그 집안의 財運이 다한 것으로 관념한다.

하다. 結局은 濟州에 入島하기 위해 憑依者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로 理解할 수 있다. 이는 神이 避身한 곳이 종로 네거리·羅州 길·浦口로 神이 坐定할 곳이 못됨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6) 濟州 康氏가 주웠던 금바둑을 버렸더니 배가 뜨질 못한다.

進上을 하기 위해서나, 刑房職을 살기 위해서 濟州를 떠난 濟州人들은 금·옥으로 變色하는 바둑들을 값진 보물로 생각하고 주었다. 그러나 보물로 생각했던 그 바둑들을 술값으로 조차 받아주지 않자 그것을 버린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濟州로 돌아올려고 하는데, 濟州로 갈 배가 바람이 없어 뜨질 못한다.

- A. 進上을 온 康氏·吳氏 船主들은 바둑들을 주워 수월하게 進上을 한다. 그러나 바둑들을 술값으로 조차 받아주지 않자 버려 버린다. 그랬더니 배가 뜨질 못한다.
- B. 康氏刑房·韓氏吏房이 금바둑·옥바둑을 주워 보물로 여겼으나, 술값으로 조차 받지 않자 버린다. 그랬더니 배가 뜨질 못한다.
- C. 李太祖에게 進上하러 온 兎山의 康氏刑房·韓氏吏房·吳氏刑房이 백물겉거리에서 금바둑·옥바둑을 줌고 나서 進上일을 하는 데 일이 잘 되었다. 그리고 주운 곳에 다시 바둑들을 놓아두고 올려는데 濟州로 돌아갈 배가 뜨질 못한다.
- D. 進上을 하러온 康氏刑房·韓氏吏房·吳氏刑房이 옥바둑과 금바둑을 주었기 때문에 進上이 되지 않는다.
- E. 미역 進上을 갔던 濟州人이 금바둑·옥바둑을 주었다가 버린다. 그랬더니 돌아올려는 배가 바람이 없어 뜨질 못한다.
- F. 康氏刑房이 육지에 刑房 살러 갔다가 행기포 를 주워오는데, 금바둑·옥바둑이 붙어왔다.

71) 보자기

본풀이가 삶의 모습을 고정하고 있음과 神의 性格(잘 위하면 좋아하고, 잘 못 위하면 싫어하는)을 일부 보여주는 類型話素다. 산해진미를 거두어 임금에게 進上을 바쳐야 했던 사실을 보여주면서도 그들이 憑依의 對象者인 단골로 選定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 위하면(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키기도 한다.

7) 굿을 하여 금바둑을 神으로 모신다.

배가 떠가야 하는데 바람이 불지 않는다. 이것은 目的하는 바를 전혀 이룰 수 없는 삶의 고통으로 시련이 아닐 수 없다. 석 달 열흘을 기다려도 바람은 불 기미가 없다. 그래서 잘 알려진 '서산대사'·'심봉사'에게 問占을 보니, '굿을 하면 그 原因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 A. '심봉사'에게 問占을 보니 康氏船主가 버렸던 바둑돌 때문이니 '굿을 하라'고 한다. 船員들이 沐浴하고 '연신고사'·'뱃고사'를 지냈더니, 바람이 일고 배가 떠가기 시작했다.
- B. 문복단점을 보아 일곱동미 행장 속에서 두지 않았던 보물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선왕(船王)굿을 한다.
- C. 서산대사에게 問占을 보니 '濟州로 갈려는 神을 모셔라'라고 하여, 뱃서낭 告祀를 올린다.
- D. 問占을 하니 '목욕계계하여 굿을 하라'고 한다. 굿을 하니 배가 뜨기 시작했다.
- E. 문복단점을 하니 '康氏 애기 행기포에 난데 없는 보물이 있으니 선왕굿을 하라'고 하여 굿을 한다.

島民의 삶과 密接한 聯關을 맺어온 굿이 그들의 삶의 苦痛을 풀 수 있는 것이었기에 持續性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 類型話素에서도 目的하는 바인 배를 띄우기 위해서는 神을 모셔야 하며, 그것은 굿을 통해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서 羅

州 錦城山の 神은 入島하게 된다.

8) 神은 濟州에 到着하여 兎山을 坐定處로 定한다.

곳을 해서 바둑돌을 神으로 모심으로 배와 육지로 떠났던 濟州 사람들은 무사히 濟州島의 한 浦口로 돌아온다. 바둑돌은 아름다운 美女로 變해 맹호부인(F本에는 타시할망)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坐定處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한다. 맹호부인은 자기가 管掌·守護하고 있는 ‘열룬이’⁷²⁾에는 빈자리가 없고 兎山으로 가라고 한다.

- A. 열룬이 혼인개에 到着하여 맹호부인에게 ‘임자없는 곳’이 어디인지를 묻고 兎山 멧떼기 ㅁ루를 坐定處로 定한다.
- B. 열룬이 수진개에 到着하여 맹호 부인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임자 없는 곳’을 알려주길 바라 兎山을 坐定處로 定한다.
- C. 열룬이 혼인못에 到着하여 맹호 부인에게 찾아가 ‘비어있는 곳’을 묻고, 兎山을 坐定處로 定한다.
- D. 모징개에 到着하여 兎山에 坐定한다.
- E. 열룬이 수전개에 到着하여 맹호부인을 찾아 뵈고, 그의 도움으로 兎山을 坐定處로 定한다.
- F. 下川里 타시할망의 도움으로 兎山 멧떼기 ㅁ루에 들어온다.

본풀이의 主人公인 羅州 錦城山の 神이 그곳 牧使에 의해 追放되어 결국 兎山에 坐定하면서, 이 마을의 堂神이 됨을 밝히는 類型話素다.

9) 兎山으로 가는 길에 손목을 더럽혀 깎아 버린다.

맹호부인이 알려준 兎山으로 가는 길에 ‘개로옥서또’(異本에 따라서는 오동깃영감 한씨영감)라는 男神에게 손목을 잡힌다. 그러자 추잡하다고 갖고 있던 銀粧刀로 손

72) 南濟州郡 城山邑 溫坪里的 옛이름

목을 꺾어 버리고는 명주로 감는다.

- A. 兎山길의 案内를 부탁했던 '오동깃 영감'에게 잡혔던 손목이 더럽혀졌다고 하여 꺾어 버린다.
- B. 千里眼을 가진 '개로육사'가 쫓아와 손목을 잡으니 추잡하다고 그 손목을 잘라 버린다.
- C. 兎山으로 가는 한집의 姿態를 보고 '개육사도'가 뒤를 쫓아온다. 한집이 兎山에 到着해 쉬고 있는데, 갑자기 男神이 손목을 잡으니 더럽다고 한집은 손목을 꺾어 버린다.
- D. 坐定해 三年을 살고 있는 어느 날, 아랫 마을의 '개로육사또'가 올라와 손목을 잡는다. 그 손목이 더럽혀졌다고 하여 꺾어 버린다.
- E. 下川里 '개로육사또'가 쫓아와서 손목을 잡으니, 잡혔던 손목을 더럽다며 꺾어 버린다.
- F. 바둑을 두고 있던 韓氏영감이 쫓아와 손목을 잡으니, 더럽다고 그 손목을 꺾어 버린다.

손목을 잡는 쪽의 신분이 異本에 따라 差異를 보이나, 兎山堂神이 퍼붓는 욕설에는 '생긴 것은 兩班같은 것이 行動은 개쌍놈보다 못하다'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異本들에 한결같이 '兩班'에 대한 욕설이 積極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類型話素다.

10) 神이 坐定했으나 아무도 待接하지 않는다.

손목을 꺾어내는 苦行을 겪으면서 兎山에 坐定했지만, 어느 누구도 감주 한잔·술 한 잔을 받으라고 待接하질 않는다.

- A. 苦行을 겪으면서도 물이 좋아 兎山에 坐定한다. 그렇지만 아무도 위해 주질 않는다.
- B. 물 좋고 놀기 좋은 곳인 兎山에 坐定했으나, 석 달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도

위하는 者가 없다.

- C. 물 좋은 兎山에 석 달 열흘을 坐定해 있어도, 어느 누가 위해 주질 않는다.
- D. 三年을 사는 동안 어느 단골도 위해 주질 않는다.
- E. '개로옥사또'에게 謝過한 후 夫婦가 되어 살아간다. 그런데 하루는 심심하여 산에 오른다.

E本에서는 다른 異本들과는 달리 待接하지 않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심심하기 때문에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마을의 諸般事를 管掌하고 守護해 주는 堂神임에도 待接하는 者가 없자 神은 造化를 부리고자 한다.

11) 神은 造化를 부려 앞바다에 떠있는 배를 破船시킨다.

神의 坐定을 알리는 造化가 일어난다. 神은(A本에는 漢拏山の 靈氣) 모진 광풍을 일으켜 앞바다에 있던 배를 破船시키고, 그 배의 船員(왜놈들)이 물이 좋은 兎山으로 오르게 한다.

- A. 漢拏 嶺州山の 靈氣가 倭船을 破船시키고, 왜놈들이 물을 찾아 兎山の '사만올리소'에 오르게 한다.
- B. 한집이 광풍을 일게 하여 破船시킨 배의 船員들을 물으로 오르게 한다.
- C. 한집이 청부채를 부쳐 먼 바다에 떠있던 배를 들어오게 한다.
- D. 호련한 광풍이 배를 破船시켰고 왜놈 일곱 놈이 단물을 구하러 물에 오른다.
- E. 漢拏山 靈氣가 판자배를 破船시키고, 병신인 왜놈들이 물으로 오른다.
- F. 모진풍파로 배가 부서지고 船員 네 놈이 물으로 오른다.

神의 노여움이 왜놈들의 侵入으로 나타난 類型話素다. 이는 神이 마을을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그 중에서도 물이 좋은 兎山이 않고 있던 歷史的 事實(倭寇의 侵入)과 關聯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 빨래를 갔던 처녀가 劫姦을 당해 죽는다.

神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造化가 드디어 現實의 苦痛으로 나타난다. 빨래를 갔던 처녀(神이기도 하다)는 破船되어 물에 오른 왜놈들에게 劫姦을 당해 죽는다. 異本에 따라서는 遺言으로 굿을 하게하는 경우도 있고, 怨靈으로 變해 다른 사람에게 病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結局에는 堂神을 모시는 굿을 하게 된다.

- A. 오씨아가가 '느즌득이 정하남'과 울리소에 빨래를 갔다가 물에 오른 왜놈들에게 劫姦을 당해 둘 모두 죽는다.
- B. 울리소에 빨래를 갔던 오씨아기와 하너는 배가 破船되어 물에 오른 왜놈들에게 劫姦을 당해 죽는다.
- C. 康氏刑房 또님애기와 하너가 破船되어 물에 오른 여덟 명의 船員들에게 輪姦을 당해 애기씨는 죽는다. 그리고 백미산에 묻힌다.
- D. 康氏刑房 딸애기와 하너가 빨래를 갔다가 물에 오른 일곱 명의 왜놈들에게 輪姦을 당해 딸애기는 죽는다. 遺言으로 3년 후에 굿을 해 달라고 한다.
- E. 한집님과 하너가 사만울리소에 빨래를 갔다가 破船되어 물에 오른 船員들에게 劫姦을 당해 죽는다. 예문은동산에 쌍묘를 쓴다.
- F. 애기씨와 하너가 사만울리소에 빨래를 갔다가 破船되어 물에 오른 4명의 船員들에게 劫姦을 당해 죽는다.

모든 異本에 나타나는 類型話素다. 이는 굿을 해야하는 原因을 밝힘과 동시에 神의 性格을 나타내 보이고, 倭寇의 侵入이 삶을 어렵게 했던 歷史的 事實을 처녀에게 劫姦이라는 最惡의 상태를 원용해 보여주고 있다. 울리소·사만울리소 등으로 나타나는 地名은 兎山이 갖고 있는 自然的 環境이다.

歷史적으로 나타난 倭侵에 의한 被害는 주로 물이 좋은 바닷가 마을에서 일어났다.⁷³⁾

73) 高光敏: 濟州島 處女堂 본풀이 研究. 1982.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p. 41.

왜놈들은 漁船을 掠奪해 逃走하거나, 주민들을 拉致해 데려가기도 했으며, 아낙네와 어린이들마저도 죽였다고 한다.⁷⁴⁾ 이러한 歷史的 事實은 삶을 병들게 하는 原因이 되었으며, 굿의 動機를 提供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 類型話素은 兎山堂 本풀이가 自然的 環境을 바탕으로 歷史的 事實을 固定하고 있다는 충분한 證據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13) 劫姦을 당해 죽은 魂靈이 생각하니 康氏刑房이 께쌌하다.

劫姦을 당해 죽은 처녀의 怨靈이 人間에 憑依하는 理由를 說明하고 있는 類型話素이다. 서울에 進上을(刑房職을 살려고) 갔다가 神을 데려온 康氏刑房이 께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劫姦이 일어나게 한 것이 羅州 錦城山에서 바둑돌로 變身해 入島한 神임을 밝혀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A本에만 나타날 뿐이다. 이 類型話素가 나타나지 않으면 劫姦의 原因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아 憑依가 우연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兎山堂 本풀이에서는 問占을 하는 話素을 끼워넣어 보완하고 있다.

14) 원풀이로 애기씨에게 急病을 준다.

怨靈이 神이건 애기씨이건 다른 처녀에게 憑依한다. 그 처녀는 앓아 눕는데 問占을 하니 굿을 하라고 한다.

- A. 오씨아기의 怨靈이 시집가는 康씨 아기의 가마대에 붙어 그에게 急病을 준다.
- B. 康氏아기에게 怨靈이 붙어 急病으로 나타난다.
- C. 韓氏吏房 또님애기에게 怨靈이 붙어 急病을 준다.
- D. 한집의 怨靈이 康氏애기씨에게 붙어 急病을 준다.
- E. 怨靈이 방아질하는 康氏애기에게 붙어 急病을 준다.

이 類型話素에는 시집가는 처녀,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방아를 짚는 처녀 등에게

74) 高光敏 : Ibid, pp. 40~41.

怨靈이 붙어 急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病을 治癒하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되는데 그 때 이 神을 請해 모셔야만 가능해진다.

15) 심방이 굿에서 고를 풀어주는 것으로 患者의 病을 治癒한다.

全體의 異本들에게 共通으로 나타나는 類型話素로 疾病을 治癒하기 위해선 굿을 해야하는데 그 속에서 '고'를 풀어 줌으로써 가능해진다. 본풀이가 굿의 形態를 決定짓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類型話素이기도 하다. 또한 '고'를 풀어야 됨은 '怨恨이 맺힌 것은 풀어야 된다'는 民俗的인 思考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그것이 굿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民衆들의 普遍的인 삶 속에 깊이 자리잡은 巫俗의 信仰性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兎山堂 본풀이의 6個의 異本들을 15個의 類型話素로 살펴보았다. 그 結果로 兎山堂 본풀이가 갖는 事件展開의 根幹構造로서 類型話素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을 整理하면 兎山堂 본풀이의 줄거리가 되는데 다음과 같다.

- 1) 神은 羅州 錦城山이 本據地다.
- 3) 牧使가 下馬를 拒否하자 말 발이 절어온다.
- 5) 神인 뱀은 다시 금바둑·옥바둑으로 變身해 피한다.
- 6) 濟州 康氏가 주었던 금바둑을 버렸더니 배가 뜨질 않는다.
- 7) 굿을 하여 금바둑을 神으로 모신다.
- 8) 神은 濟州에 到着하여 兎山을 坐定處로 定한다.
- 9) 兎山으로 가는 길에 손목을 더럽혀 깎아 버린다.
- 12) 빨래를 갔던 처녀가 劫姦을 당해 죽는다.
- 15) 심방이 굿에서 '고'를 풀어주는 것으로 患者의 病을 治癒한다.

敘事文學인 본풀이는 事件의 展開로 內容이 構成되며⁷⁵⁾ 이들 事件은 相互 有機的

75) 徐大錫: 韓國巫歌의 研究, 1980. 文學思想社, p. 146.

인 關聯을 갖고있기 마련이다. 兎山堂 본풀이가 갖는 以上の 根幹構造로서의 類型 話素는 어떠한 異本에서나 存在하는 것이기도 하다.

一般的인 堂神本풀이가 ‘出生-追放·行脚-司祭選定-坐定’의 構成을 갖는 것⁷⁶⁾ 과는 달리, 兎山堂 본풀이는 ‘出生-追放-단골選定(入島憑依)-坐定-凶驗-단골 確認-坐定’의 構成을 갖는다. 이는 兎山堂神이 여느 堂神들과는 달리 入島神이기 때문에 갖는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兎山堂 본풀이가 갖는 根幹構造로서 類型話素를 漢詩構成法에 대비해 그 構成的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 表4와 같다.

〈表4〉 兎山堂 본풀이의 構成

活 動	漢詩構成法	本풀이의 構成	類型話素
入 島 前	起 承 轉	出 生 追 放 단골選定(入島憑依)	1), 3) 5) 6), 7)
入 島 後	結-起 承 轉 結	坐 定 凶 驗 단골確認 坐 定	8), 9) 12) 15)

兎山堂神이 外來의 入島神이기 때문에 갖는 特徵은 ‘起-承-轉-結’의 構成이 神의 活動舞臺를 背景으로 ‘追放’과 ‘坐定’의 段階가 나뉘어져 있으며 그들이 이중적으로 結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民衆의 支配階層에 대한 諷刺를 表現하면서도 主人公인 神은 貞節을 強調한다. 더욱 神의 存在를 確認시키는 過程에서 처녀에

76) 玄容駿：“本풀이의 形成과 內容”，「韓國言語文學」창간호, 1963. 한국언어문학회.

게 劫姦을 주고 그 怨魂으로 하여금 단골의 처녀에게 다시 憑依케 함으로서 神으로 坐定한다. 더군다나 처녀가 倭寇에게 貞節을 유린당하게 함으로써 倭寇에 대한 警覺心을 鼓吹시키는 社會性을 反映함과 아울러 歷史的 事實을 固定하고 있음도 또한 알 수 있다.

2. 兎山堂 본풀이의 變異樣相

記錄文學과는 달리 口碑文學은 입을 통해 말로써 傳承이 이루어짐으로 口演現場이 곧 傳承現場이며, 變化를 수반하는 創作의 現場이 되기도 한다. 口碑文學의 變化要因은 ① 先行資料에 대한 謬聽과 誤解 ② 口演現場의 狀況 ③ 傳承者의 個性 등으로 지적된 바⁷⁷⁾ 있다. 先行資料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傳達될 때에는 같을 수가 없다. 들을 때 시끄럽거나 口演者의 목소리가 가늘어 잘못 들리는 경우가 있고, 잘 들었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經驗에 따라 다르게 理解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들었던 資料를 이야기하는 立場에 섰을 때에도 聽者에 따라 目的하는 바를 傳達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의 方式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것들로 보아 變化 그 自體가 創作을 意味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傳承者의 個性에 따라서 다른 傳承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口碑文學의 特徵이다.

口碑文學 作品이 傳承되는 過程에서 가장 쉽게 變異될 수 있는 것은 固有名詞이다 主人公의 이름이나 그와 더불어 그가 活動하던 地域의 地名은 暗記를 해야만이 그 다음 口演現場에서 口演이 가능해진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作品內의 全體의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相互의 名稱들이 맺고있는 關係는 記憶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作品 全體를 記憶할 수 없는 段階에 이르게되어 作品의 口傳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傳承은 斷絶되고 만다.

一般的인 說話와는 달리 兎山堂 본풀이는 심방에 의해 行祭되는 兎山堂神에 對한

77) 徐大錫 : Ibid, pp. 111~116.

儀禮에서 불러지는 特別한 口碑文學이다. 심방의 오랜 巫儀 習得 過程에서 傳承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口碑文學 作品들과는 다른 變異의 樣相이 나타날 것이라 기대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6個의 異本들을 對象으로 名稱變異의 樣相을 表로 나타내면 表5와 같다.

다음의 表5에서 나타난 名稱 變異를 통해 兪山堂 本풀이의 變異樣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登場人物의 이름에 대한 變異樣相이다.

主人公인 神의 이름이 ‘한집’·‘신당한집’·‘애기씨’로 나타난다. 이름의 頻度數로 보아 ‘한집’이 제일 높으나 ‘애기씨’라는 名稱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처녀로 變身하는 神의 性格에 影響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한집’으로 固定된 理由는 神話의 主人公인 神의 이름이며, 口演하는 심방의 조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下女의 이름도 ‘느진덕 정하님’이라고 固定되어 使用되는데, 이는 濟州島의 여러 本풀이에 登場하는 下女의 일반적인 呼稱이기 때문일 것이다. 神의 손목을 잡은 男 神의 이름이 ‘개로옥사또’로 固定된 것도 같은 意味에서 理解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自願한 牧使의 이름이 ‘어떤 사람’·‘거출한 선비’·‘양목사’·‘가난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점과 下馬를 勸諭한 사람이 ‘지동토인’·‘시녀성방’·‘말정매’·‘문집대감’ 등 多樣하게 나타나는 점은 直接的으로 神과 관련된 固有名詞가 아니기에 곳에서 심방이 이야기 속에서 차지하고 있던 構造的 影響을 동원해 ‘용감한 사람’ ‘산을 지키거나, 말을 끌어주는 下吏’에 그 영상을 맞추어 口演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의 名稱이 本풀이의 初盤部에 一回의으로 登場하는 人物들에게 붙여진 이름이기에 더욱 잊혀지기 쉬웠을 것이다.

둘째, 地名에 관한 變異樣相이다.

神의 出處인 羅州는 神의 性格을 暗示해 주는 곳으로 穀倉地帶에 坐定했던 神이 富神의 性格을 지녔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神의 뜻을 묻고 傳達하는 口演者로서의 심

〈表5〉 兎山堂 본풀이의 名稱變異

구분	신외 출처	신외 이름	하녀 이름	자원한 목적	하마를 권유한 이유	바둑돌 울주는 장소	바둑돌 울주는 사람	신의 제주소	포산을 가르쳐 준 신	손목을 잡은 이유	접간을 당한 이유	접간한 놈	모지	비고
이본														
A	나주 금성산	한 집	느진덕 정하님	X	지동토인	종로 내거리	강씨오씨 한씨선주	열론이 혼연개	맹호부인	오동 깃영감	오씨 아기	왜 귀 놈들	고장났 발상 묘산	
B	나주 금성산	신당 한 집	늦인덕 정하님	어떤 사람	지동토인	고달도 김바닥	강씨성방 한씨이방	열론이 수진개	맹호부인	개로옥스	오씨 아기	X	X	
C	나주영산 금성산	한 집	늦인덕이 정하님	진출한 신비	시녀성방	종로 내거리	강씨성방 한씨이방 오씨성방	열론이 혼인못	영호부인	개로 옥수도	강성방 토넬애기	여덟놈	백미산	
D	X	애기씨	늦인덕아 정하님	X	말경애	백물개 거리	강씨성방 한씨성방 오씨성방	모정개	X	개로 옥수도	애기씨	왜 놈 입 꿈	알력발 상미산	
E	나주영산 금성산	한 집	느진덕아 정하님	양목사	X	종로 내거리	강씨성방 오씨성방	열누니 수진개	맹호부인	개로 옥서포	한 집	병신들	예문은 동산 쌍묘산	
F	나주영산 금성산	애기씨	늦인덕이 정하님	가난한 사람	문집대감	종로 내거리	강씨성방	X	타시할망	한씨영감	애기씨	왜놈넷	예문은 동산 쌍묘	

방이 임의로 고칠 수 없는 地名이다. 그리고 본풀이의 序頭에 나타나는 地名이기에 다른 어떤 地名보다도 變異의 가능성이 낮다.

바둑돌이 떨어진 場所가 '중로 네거리'로 固定되어 나타난다. 避身한 神이 憑依하기 쉬운 곳으로 선정한 곳으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쉽게 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異本에서 '백물갯 거리'라는 浦口가 登場하기도 하고, '나주 길바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神의 入島處인 '열룬이'도 거의 모든 本에 固定되어 나타난다. 이 또한 위와 같은 論理로 說明이 가능해지며, 빨래터의 명칭이 (사만)올리소로 固定되는 점 또한 같은 경우이다. 이처럼 固有名詞와 마찬가지로 地名의 變異도 극히 制限的인 樣相을 보이고 있다.

全體的으로 살펴볼 때 變異이 폭은 극히 制限的임을 볼 수 있다. 共時的인 資料들의 分析이라는 限界는 있지만, 메인심방으로 固定시켜 儀禮를 行祭케 하는 濟州島 巫俗의 特性을 反映하는 것이기도하다. 生活 속에서 그 神을 血緣關係의 祖上으로 觀念하는 심방이 그 祖上의 來歷譚을 忘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풀이의 變異이는 더욱 制限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3. 본풀이의 文學的 意味

본풀이를 통해 가장 확연히 糾明될 수 있는 것이 神의 性格일 것이다. 構成的 特徵에서도 나타나듯이 兎山堂神의 性格은 본풀이의 根幹構造를 통해 理解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兎山堂 본풀이가 나타낼려는 意味를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

1) 靈氣센 富神이다.

神은 羅州 靈山 錦城山의 堂神으로 羅州 土地官이었다. 羅州는 벼농사의 穀倉으로 넓은 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을 守護하고·管掌하는 神을 커다란 神

堂을 지어 모시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⁷⁸⁾ 이는 본풀이의 主人公인 兎山堂神이 羅州出身의 富神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神은 靈氣가 세어 牧使로 赴任하는 者는 석 달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죽거나 封庫罷職된다. 이러한 所聞은 퍼져나가기 마련인 만큼 羅州로 任地가 定해지면 牧使는 赴任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대단했던 神의 能力을 反證해 주는 것으로 오랫동안 羅州를 지켜왔던 兎山堂神의 靈氣를 說明한 것이다. 본풀이의 主人公인 神이 富神이기 때문에 내용도 富神과 관련된 이야기로 진행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으로서의 본풀이가 갖는 의미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富를 주제로 다루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

2) 처녀·뱀과 關聯된 神이다.

권유하는 下馬를 拒否하자 말 발이 짚어온다. 이것이 神의 靈氣때문임을 안 牧使는 羅州에 土地官이 들일 수 없는 論理로 靈氣의 根源을 찾는다. 靈氣의 根源인 神은 자욱한 안개 속에 아름다운 美女로 登場한다. 사람이 어찌 神일 수 있느냐는 牧使의 의아심은 神의 實體를 밝혀내려고 굿을 하거나 正법을 외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자 아름다운 美女는 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한 아가리는 하늘에 닿고 또 한 아가리는 땅에 닿은 '천구아구대뱀'이 나타났다. 靈氣의 實體가 단지 큰뱀에 지나지 않았다. 더군다나 여의주나 金광주조차 물고 있지 않는 뱀이었다. 牧使는 불 잘 놓는 下吏를 불러 뱀과 神堂에 불을 놓고 주위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 羅州 錦城山의 神은 더 이상 그 곳에 있을 수 없어 金바둑 玉바둑으로 變色하는 바둑들로 變身하여 종로 네거리로 避身한다.

여기에서 神의 出現方式이 어느 程度 밝혀지는데 神이 神들에게 보여질 때는 아름다운 女人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神이 人間에게 보여질 때는 뱀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出現方式의 原則이 어겨지면 苦痛이 따르는데 그 例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神이 羅州에서 追放될 때 처음 人間에게 女人으로 보였었다. ② 劫姦을 당

78) 秋葉隆：朝鮮民俗誌，1954. 六三書院，p. 211.

할 때 왜놈들에게 처너로 보인다.

이처럼 본풀이에서 나타나는 歷史的 事實의 苦痛이 出現方式의 原則을 어긴 神의 行爲와 일치됨을 또한 알 수 있다. 이는 이야기의 논리적 전개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구비전승이라는 특수한 조건속에서도 전승이 가능토록한 전승력의 극대화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富와 饑, 여성이 관련되는 思考의 범주가 비단 兎山堂 본풀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생산력과 饑·용의 富神의 思考를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관련지어 神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모시지 않으면 凶驗을 주는 神이다.

단골이 굶을 하게 되는 動機이다. 血緣의 祖上은 아니더라도 神을 모시지 않으면 凶驗이 온다. 그 凶驗은 현실적인 苦痛과 일치하게 된다. 이 苦痛의 形態는 多樣하게 나타난다. 支配階層에 의한 被支配階層이 받은 苦痛, 歷史적으로 倭寇들에 의한 被害의 苦痛, 倭寇의 破船兵에게 당한 처녀의 劫姦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오늘날의 現實的인 苦痛과 연결된다. 척박한 땅에서의 농사일, 바다의 밭을 일구어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가난·疾病·結婚의 失敗 등의 苦痛이 굶을 하게끔 하는 것처럼 삶의 限界는 언제·어디서나 누구에게라도 있어왔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神은 삶의 의지처로서의 存在였던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兎山堂 본풀이는 兎山마을의 部落民 특히 韓氏애기, 吳氏애기가 겪었던 苦痛의 삶을 堂神의 行蹟을 통해 보다 具體적으로 固定시켜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 堂神은 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밝음·陽·善·삶 등의 意味를 지니는 '먹을 인연·입을 인연'을 주는 한집이면서 어둠·陰·惡·죽음 등의 意味를 아울러 갖는 凶驗·苦痛(倭侵·倭寇에 의한 劫姦)을 주는 한집이기도 하다. 제주도 속담에 '잘 먹으면 잘 먹은 값, 못먹으면 못먹은 값'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人間자체가 잘 대접을 받으면 고마움을 느끼고, 학대를 받으면 미움이 생겨나듯 인간의 기본심성을 표출한 말이다. 주인공은 잘 모시면 富를 주지만 잘 모시지

않으면 凶驗을 주는 神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토산당 본풀이는 주인공인 兎山堂神의 行蹟을 통해 民衆들의 人間性을 投影한 文學作品으로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으로 兎山堂 본풀이에 대한 構成的 特徵과 變異樣相 그리고 본풀이의 文學的 意味에 대해 살펴보았다.

外來 入島神의 來歷譚으로서 兎山堂 본풀이는 入島前의 行蹟과 入島後의 行蹟이 舞臺를 달리하면서 나타나는 이중구조의 構成的 特徵을 갖는다. 變異樣相은 血緣의 祖上은 아니지만 祖上으로 모시는 심방이 口演하는 것이기에 그 폭은 극히 制限의 限을 밝혔다. 그리고 神이 女神 혹은 뱀의 形象으로 나타나는 심술굿은 富神이며, 이를 통해 兎山堂 본풀이가 富의 추구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망을 담고 있는 文學 作品임도 살폈다. 이러한 兎山堂 본풀이는 神의 行蹟을 통해 歷史的 事實을 固定시킴으로써, 지금 現時點에서 나타나는 삶 의 苦痛과 連結되어 兎山堂神을 請해 굿을 하게끔 만드는 것임도 아울러 밝혔다.

이제는 굿과 본풀이의 相關性을 理解키 위해 兎山堂神을 對象으로 행하는 굿의 形態를 分析해야할 때다. 이를 위해 현지조사에서 蒐集한 資料에다 함덕에서 '본향풀이'의 類型으로 朴○○⁷⁹⁾ 심방에 의해 行祭된 당굿의 資料를 더하여 檢討했다. 그리고 굿의 여러 祭次 중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방울뿔'의 儀禮形態를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79) '86年 10月 高光敏이 함덕에서 촬영한 video 資料의 行祭巫, 노환으로 얼마전에 돌아가셨다.

IV. 兎山堂굿과 본풀이의 相關性 分析

兎山堂굿이란 兎山堂神을 請해서 행하는 巫俗儀禮를 이르는 것으로, 이 神은 兎山에 坐定하여 마을의 諸般事를 管掌·守護해 주는 '토산한집'·'여드레한집'을 말하는 것이다.

兎山堂굿은 두가지의 機會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堂神의 祭日인 11月 8日과 6月 8日에 部落民 共同이 參與하여 행하는 경우로 '제일치기'라 한다. 또 하나는 兎山堂의 信仰民 家庭이 中心이 되어 疾病治療나 年例的 行事로 행하는 굿을 말하는데, 이것 또한 두가지 類型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信仰民의 집에서 행하는 경우로 '본향풀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堂에서 하는 경우로 '공들이기'라 한다.

이처럼 兎山堂神에 대한 儀禮는 '제일치기'·'본향풀이'·'공들이기'의 3類型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서로 다른 祭次에 의해 儀禮를 進行하지만 儀禮를 行하는 目的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는 儀禮에 請해 모셔서 行祭하는 對象神이 같음에서 잘 드러난다. 다시 말해 兎山堂神의 도움으로 目的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意味에서 儀禮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들 儀禮의 類型은 祭儀場所와 規模의 差異에 따라 決定되는데 이들을 表로 나타내면 表6과 같다.

'제일치기'의 儀禮가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공들이기'의 儀禮도 兎山堂의 常住處인 堂에서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이 堂은 祭儀空間이면서 神聖空間이 된다. 본풀이에 堂에 관한 具體的인 論據는 없지만, 坐定處를 選定할 때 '임자 없이 비어있는 마을'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과 神이 受難을 겪으며 兎山에 到着해서는 '베릿물도 좋고 ㄴ단샘이 세숫물로 좋고, 놀기 좋아 만대를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 하는 場面이 나온다. 이들을 連結시켜 생각해 볼 때 '傳說上의 堂의 자리'⁸⁰⁾라고 하는 곳이 堂이

80) 兎山2里 청년회장(男 35, 고○○)

〈表6〉 兎山堂곳의 3類型

類型 祭場 目的	제일치기	본향풀이	공들이기	備考
	堂	家庭	堂	
請神	초감제 (본풀이, 방울품)	초감제	초감제	본풀이
迎神	추물공연	추물공연		
謨神	액막이	석살림 (본풀이, 방울품)	채석풀이	본풀이
祈求	도산발음	소지살음		
	자손들케붓음	본향다리		
送神	도진	도진	도진	

位置했던 곳으로 여겨진다. 확실한 地域인지 좀더 면밀한 調査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공교롭게도 이곳이 지도⁸¹⁾에도 ‘당머리’라 적혀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兎山2里 事務所
所와 青年會館이 位置한 바로 위쪽의 곳으로 사철나무와 동백나무가 뻗뻗하게 자라
고 있고 그 주위로 작은 돌맹이가 흩어져 있는 곳을 이르는 듯 하다.⁸²⁾

一般的으로 堂은 거의 部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位置하는데, 보통 마을 入口나
길가에서 벗어난 곳으로 民家에서 개 짖는 소리, 닭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곳이다.⁸³⁾

이와는 달리 ‘본향풀이’는 信仰民인 단골의 家庭 집에 祭床을 차리고 兎山堂神을
請해 모셔 행하는 곳을 말한다.

81) 國立地理院 : 표선, 도엽번호 NI 52-9-25-2 표선, 1982. (축척 1 : 25,000)

82) 이곳을 兎山堂이 位置했다고 指摘한 學者로 卓明煥(1978. 72), 島越憲 三郎(1988.

23) 등이 있다.

83) 玄容駿 : Ibid, p. 864.

이렇게 行祭되는 곳은 一定한 進行過程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제일 처음 祭場에 神들을 請해 모시는 過程이 베풀어진다. 그리고 請해 모신 이들 神에게 準備해 차린 음식을 드시라고 권한다. 그리고 나서야 請해 모신 兎山堂神의 本을 풀고 祈求事項을 아뢴다. 이때에 곳의 目的을 極大化시키기 위해 ‘방울품’의 過程이 행해진다. 그리고 나서 여러 神들에게 다시 待接하고는 마지막 過程으로 請했던 神들을 돌려 보낸다. 이로서 兎山堂곳은 끝이 난다. 이와 같이 請해 모신 對象神의 本풀이를 노래하고 나서 祈求事項을 들어주도록 祝願하는 理由는 그 神의 過去行蹟이 神話인 本풀이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음으로 이를 노래함으로 神을 즐겁게 해주고 이 가운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神이 그 祈求事項을 들어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本章에서 다루는 ‘방울품’은 보통 13.4分 정도 행해지는 儀禮인 것이다. 이것을 다시 巫樂 伴奏에 의해 나누면, 5段階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① 방울놀림 ② 방울품 ③ 푸다시 ④ 갈룡머리 내놀림 ⑤ 酒盞넘김이 그것이다.

〈表7〉 ‘방울품’의 形態

順 序	形 態 名	所 要 時 間	巫 樂 器	‘방울친’사용	備 考
1	방울놀림	1分40秒	징·설채·장구·북	심방이 들고	
2	방울품	7分30秒	장구·북	고를 풀고 환자의 목에 건다	환자등장
3	푸다시	1分10秒	징·설채·장고·북	환자의 목에 걸어 둔다	환자퇴장
4	갈룡머리내놀림	2分20秒	가끔 북	심방이 들고	
5	주잔넘김	1分10秒	징·설채·장구·북	X	
計		13分40秒			

1. 방울놀림

본풀이 口演이 끝나면 심방은 ‘신칼’⁸⁴⁾로 점을 쳐 神의 뜻을 確認한다. 그리고는 ‘신칼’을 켓상 앞에 갖다두고, 그곳에 準備해 두었던 ‘방울친’⁸⁵⁾을 꺼내든다. 그리고 서너 발자욱 뒤로 물러서는듯 하면서 그 ‘방울친’에 만들어져 있는 4個의 ‘고’를 한 손에 두個씩 나누어 쥐고 巫樂 伴奏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한다. 온 祭場이 巫樂器의 경쾌한 伴奏로 가득해진다. 켓상 앞 ‘젯자리’⁸⁶⁾의 앞쪽에 서서 춤추던 심방이 뒤로 조금 물러서면서 왼쪽 방향으로 천천히 들더니, 이내 빠른 몸놀림으로 바뀌어 추기 시작한다. 그리고선 다시 뒤로 물러서면서 ‘방울친’을 목위로 올려 목에 건다. 이때 심방의 복장은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있는 상태다. 물론 ‘고’는 양손에 잡고 있다. 그리고 나서 왼쪽 방향으로 빠르게 두 바퀴를 돌고 오른쪽 방향으로 다시 한 바퀴를 돈다. 그러면서 양손에 든 ‘고’를 까불린다. 그리고 祭床을 正面으로 보게 서더니 ‘巫濩師’인 ‘제비’들에게 목으로 신호를 주어 巫樂 伴奏를 그치게 하고 심방은 허리를 구부리듯 하면서

“오씨애미⁸⁷⁾ 못쳐온⁸⁸⁾ 마흔대자 상방울 굿이여”

“강씨애미 못쳐온 서른대자 증방울 굿이여”

84) 심방이 굿을 할때 사용하는 巫具의 하나다. 그 밖의 巫具로는 요령과 산판 등이 있다.

85) 兎山堂神에 대한 儀禮 때 심방에 의해 준비되는 것으로 3-4尺의 흰색천을 가리킨다. 이는 곧 神體이면서 굿의 목적을 획득하게 하는 呪術的 道具이기도 하다.

86) 玄容駿: “濟州島 토산당굿”, 1966. 文化財管理局, p. 481. 의 祭場 배설도를 참고할 것.

87) 吳氏아기, 吳氏처녀

88) 맏어오던

라고 심방이 몸을 하고 “어이”라고 하면 巫樂 伴奏는 경쾌하게 울러나고, 심방은 오른손을 무릎에 두 번 뒤기듯 하며 동시에 왼쪽 방향으로 빠르게 돌면서 춤춘다. 이때는 물론 ‘방울친’은 심방의 목에 걸려있다. 한 바퀴를 돌고 나서는 왼발 왼손, 오른발 오른손을 伴奏에 맞추어 놀리며 뒤는 물러서는듯 춤춘다. 그리고 다시 목으로 신호를 하고 巫樂이 그치면 심방은 조금 전과 같은 몸짓을 하면서

“한씨애미 못쳐온 스물요덥⁸⁹⁾ 하방울 굿이여”

라고 만들고, 이와 동시에 빠른 박자의 巫樂에 맞추어 왼쪽으로 두 바퀴,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돌고는 다시 祭床 앞쪽으로 서면서, 앞·뒤, 앞·뒤로 움직이면서 춤을 추다가, 멈춰 서면서 다시

“상방울·중방울·하방울 굿이여”

라고 만든다. 그리고 나서 巫樂席쪽으로 서면서 왼쪽으로 한 바퀴를 돌고 뒤로 물러서는듯 하면서 다시 멈춰서서



“펜안바당⁹⁰⁾으로 배방송”

이라고 만들고 왼쪽으로 한 바퀴를 돈다. 이때 巫樂 伴奏는 크게 빠르게 한참동안 계속된다. 물론 심방은 그 巫樂에 맞추어 계속 춤을 춘다. 그리고 나서 장구와 북소리만 남기고 巫樂 伴奏가 바뀌면서 儀禮도 다음 祭次로 넘어간다.

1分 40秒 정도 所要되는 이 段階에서는 심방의 몸과 행위, ‘고’의 意味에 유의할

89) 二十八

90)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

必要가 있다. 즉 患者의 疾病이 본풀이에서 나타났던 歷史的인 苦痛과 脈絡을 같이 하는 것으로 連結시키고, 그 苦痛의 原因은 神을 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심방은 神을 모신 이 자리에서 '방울친'에 만들어진 '고'의 來歷을 본풀이에서 처녀들에게 맺혀왔던 神의 凶驗으로 規定하고 이를 說明하고 있다. '고'에 呪力을 강화시키는 行爲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⁹¹⁾

그리고 심방이 巫樂 伴奏에 맞추어 祭場에서 왼쪽 방향으로 돌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한 번은 빠르게 한 번 늦게, 또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물러서는 심방의 춤에 유의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는 굿을 行祭하는 심방이 祭場에 神明을 부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目的하는 바를 獲得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심방의 춤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굿에서 본풀이를 부르고 난 다음 행하는 '방울품'의 祭次 도입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굳이 意味를 찾는다면 방울친에 맺혀진 '고'가 疾病의 原因이며, 즉 患者의 病을 治癒할 수 있는(굿의 目的) 方法 즉, '고'를 풀고, 神을 모셔야 하는 方法이 밝혀진데 대한 '긴장된 환희'의 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고'에는 본풀이에서 說明한 처녀들의 願령이 서려있는 것이기도 하다.



2. 방울품

빠르고 경쾌했던 巫樂 장단이 느리고 조용한 장단으로 바뀔과 동시에 심방의 행위도 느리고 천천한 것으로 바뀐다. 심방이 서서 巫樂에 맞추어 先唱을 하면 樂巫들은 복창한다.

91) 現在의 苦痛과 歷史的 事實을 連結시키는 그 자체만으로도 呪力을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病의 原因이 밝혀지고 그것을 退治키 위해 '고'를 푼다는 것. 이것도 呪術的 行爲인 것이다. (문무병(민속학)談)

사나사나/ 일격으로⁹²⁾/ 월격으로⁹³⁾
 사나사나/ 천진일격⁹⁴⁾/ 사나줍서⁹⁵⁾
 [이때 심방이 목에 걸쳤던 '방울친'을 걷어낸다]
 오씨애기/ 못쳐오던/ 모흔옴⁹⁶⁾/
 상방울로[방울친을 걷어낼 때 들려졌던 갓을 매만진다]
 강씨애미/ 못쳐옴던/ 서른옴⁹⁷⁾/
 중방울로[양손에 고를 두개씩 나눠 쥐고 왼쪽으로 천천히 돌면서]
 한씨애미/ 못쳐오던/ 스물옴/ 하방울로
 [오른 손에 들었던 고를 세워 들면서]
 요방울이 들어/ 지녀스록⁹⁸⁾ 당주소록⁹⁹⁾
 [다시 오른손에 들었던 고를 세워 들면서]
 요방울 들어/불도스록¹⁰⁰⁾/ 지녀스록/ 불러주었구나
 [왼 손에 들었던 고를 세워 들면서]
 요방울이/ 신병을 불러주고[오른손에 들었던 고를 왼손으로 옮겨 함께 쥐고는
 오른손으로 患者를 들어오라고 손짓하면서] 이레움서¹⁰¹⁾/ 이레왕 아집서¹⁰²⁾ [이

- 92) 日刻으로
 93) 月刻으로
 94) 天地日刻(?)
 95) 살려낸 주십시오
 96) 四十八
 97) 三十八
 98) 감옥에 가게 하는
 99) 무업을 안되게 하는 邪氣
 100) 애기의 성장을 방해하는 邪氣
 101) 이리로 오십시오
 102) 이리로 와 앉으십시오

때 젓자리인 초석 위에서 노래하던 심방은 초석 밖으로 약간 나서는듯 하고, 소미인듯 한 여자가 초석을 정리해 두고 들어오는 患者를 안내해 초석 위에 앉힌다.] 예순 여섯/ 이 방울이 들고/ 등태기¹⁰³⁾ 들고[이때 患者가 자리를 잡고 앉는다] 요것보라/ 등태에 들고/ 요방울이 들어/[이때까지 심방은 患者의 앞쪽·젓상을 뒤로 하고 서서 노래하다가 患者의 뒤쪽으로 이동해 섰다가 소미에 의해 행장이 매만져지면 반쯤 앉는다]

신경통이여/ 감기통이여/ 테독들고¹⁰⁴⁾/ 솔독에¹⁰⁵⁾ 들었구나/

방울방울/ 再혼 肉毒/상방울에/[患者의 뒤에 앉아서 고를 든 손으로 患者의 등을 어루만진다]

서른 肉毒/중방울에/이 남편 없어만난¹⁰⁶⁾/ 고생고생/ 일천고생 다하고/ 돈엇이 난¹⁰⁷⁾/ 이 곳 못해영¹⁰⁸⁾[심방이 일어나 患者의 앞쪽으로 온다]

천천지나¹⁰⁹⁾/원본이 돼여그네¹¹⁰⁾/

이레봐도 나도나고/저레봐도 나도나고(?)

[앉으면서 患者의 오른쪽 어깨에 고를 든 손을 얹으며]

등태들어/ 오장에 들어/

대남 木작¹¹¹⁾/ 부리 木작¹¹²⁾



- 103) 등어리
- 104) 胎毒
- 105) 肉毒
- 106) 이 남편과 재혼(再婚)하여
- 107) 돈이 없기 때문에
- 108) 못하여
- 109) 오래동안 그냥 지나버리니
- 110) 怨靈이 되어서
- 111) 대나무의 마뱀 매듭
- 112) 식물 뿌리의 마뱀 매듭

벌ㅁ작은¹¹³⁾ / 주영당산¹¹⁴⁾ / 벌ㅁ작은/ 동심절에¹¹⁵⁾
 서남절에¹¹⁶⁾ / 못쳤더라
 [患者의 오른쪽 어깨를 치면서]
 요거보라/ 낙단독지¹¹⁷⁾ / 청주냉이고치¹¹⁸⁾
 [患者의 왼쪽 어깨를 치며]
 원~독진¹¹⁸⁾ / 흑주냉이겉듯¹¹⁹⁾
 삼태혈료¹²⁰⁾ [심방이 왼손으로 患者의 등쪽을 짚으며]/ 실실실실/
 단구지로/ 뱀수는정¹²¹⁾ / 대고지로¹²²⁾ / 쭈시는정/
 [심방이 오른손을 들면서 큰소리로]
 이방울을/못내푸난(患者의 오른쪽 어깨를 짚으며)/땡이땡이/ 못쳐더라/감겼더
 라/
 [양손에 들었던 고를 정리해 患者의 앞쪽에 두고 그중에 하나를 들고 患者의 가
 슴쪽으로 가져오면서]
 요거보라/앞으로 ㅁ진 ㅁ작¹²³⁾ /



- 113) 벌집처럼 일키고 설킨 모양
- 114) 意味未詳
- 115) 同心結에
- 116) 동심절에 맞춘 調韻句
- 117) 오른쪽 어깨
- 118) 왼쪽 어깨에는
- 119) 검은 지네 걸어가듯
- 120) 產胎血로
- 121) 뿔아대는 듯
- 122) 땃고지(대나무로 만든 꼬지)로
- 123) 앞으로 멧힌 매듭

[큰소리로] 멩이멩이/전성긱엉¹²⁴⁾/초전싱 그리켰 나사난¹²⁵⁾/ 요방울이 들고/
 [큰소리로] 울어울어/실편울리고/
 [고를 머리쪽으로 대면서] 요게들어 남중보살. ㄱ치¹²⁶⁾/ 인제정녀¹²⁷⁾/ 불쌍하다
 적막하다/
 [머리에 대었던 곶 가슴쪽으로 내렸다가] ㄸ리ㅁ작[고를 푼다]/ 풀어막자[다
 시 곶을 찾아 든다]/
 요게들어/앞으로 든 ㅁ작/뒤호로나/
 뒤호로 든 ㅁ작/앞으로나/[고를 患者의 앞가슴에 대면서 큰소리로] 멩이멩이/
 어린시에(?)/[고를 풀면서] 불려주엉/[큰 소리로] 풀어 풀어/
 풀어 맞자/[왼손에 곶을 쥐면서]
 멩 삼년을/돌포삼년/
 이곳 ㅎ젠/ 돈 엇이난/
 멩내 멩해¹²⁸⁾/ 울었더라
 (칭불)/ (칭불)/
 [심방이 양손으로 患者의 이마를 만지면 큰소리로] 이조상이/예순 여섯/
 멩이멩이/감아지고/[患者의 뒤로 오면서] 비어지고¹²⁹⁾/ 못쳤구나/
 [患者의 등뒤에 반정도 앉아서 심방은 곶을 患者의 등에 댄다] 오씨애기/
 [큰소리로] 못쳐오던/ 상방울로/
 뒤으로 못친 걸랑/앞으로랑
 [등에댄 곶을 풀면서 큰 소리로]

124) 前生이 좋지 않아

125) 초년(젊어서)이 잘못 되어 버리니. 첫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126) 남중보살 같이

127) 살아온 사정과 정의

128) 몇년 몇해, 오랫동안

129) 걸으로 드러나서(빠져나오고)

풀어 풀어/풀어 맞자/
 막작 풀뚝/땡이 땡이/ 풀어진다/
 삼태혈에/ 요거보라/
 태서혈에¹³⁰⁾/ 못쳤구나/
 혼번은 아야 머리여/ 아야 가슴이여¹³¹⁾/
 등땡이 슬땡이여¹³²⁾/
 [등에 대었던 고를 다시 풀며]
 요것 보라/못쳤더라[그리고 일어서면서 고를 다 푼 방울친을 적당한 길이로 재
 어 맞추고 오른손에 쥘다]
 요것보라/
 [큰 소리로] 동의 와당¹³³⁾/청룡 머리¹³⁴⁾/
 서의 와당¹³⁵⁾/ 백룡머리¹³⁶⁾/
 [오른손에 든 바울친을 휘휘 감아 돌리면서] 남의 와당¹³⁷⁾/ 청룡 머리/[한 쪽
 방향으로 몇가닥의 방울친을 患者의 목에 감으면서] 감아지고/비어졌저/
 요것 보라/예순 유섯/못쳐지었구나
 [심방이 患者의 앞쪽으로 와 반쯤 앓는다. 그러면서 얼굴의 땀을 뺏는다] 감겨
 지었구나/

-
- 130) 胎○血에
 131) 가슴이여
 132) 살덩어리(허벅지나 엉덩이 등 살이 많은 부위)
 133) 東海 바다
 134) 용의 이름, 靑龍
 135) 西海바다
 136) 용의 이름.
 137) 南海바다

삼 월이라 /삼짓 날은/육지마을(?)/숫아나근¹³⁸⁾
한 간 도리¹³⁹⁾ / 추년 도리¹⁴⁰⁾ /
우영 자영 /마당 네 구석¹⁴¹⁾ /
고팡¹⁴²⁾ 정지간에/
독도덕 고치¹⁴³⁾ / 물패기 ㄹ찌¹⁴⁴⁾ /
셋배염 ㄹ치¹⁴⁵⁾ / 돛줄레 ㄹ치¹⁴⁶⁾ /
〔큰소리로〕 눈아래나/ 펜식해영¹⁴⁷⁾ / 요계들영/
청구렁이 ㄹ치¹⁴⁸⁾ / 즈손덜에/
눈아피나¹⁴⁹⁾ / 시겼구나/
〔큰소리로〕 굿내왔구나¹⁵⁰⁾ / 혼내왔구나¹⁵¹⁾
오늘날랑¹⁵²⁾ / 감아지고/비어지고/ 방송시켜그네/ 〔앉아서 ㅁ하던 심방이 일어

138) 숫아나면(아스라히 보이면)

139) 대들포

140) 추녀 끝 도리

141) 집안의 오른쪽 왼쪽 구석구석

142) 제주도 초가 가옥 공간중 하나, 곡식의 보관처

143) 닭도둑 같이

144) 머릿 삼각형 독사 같이

145) 제주에만 서식하는 작은뱀

146) 얼룩진 무늬를 가진 물뱀 같이

147) 변색(變色)하여

148) 청(靑)구렁이 같이

149) 眼疾

150) 굿을 하게 되었구나

151) 註150)의 댓귀

152) 오늘은

서면서 께상 앞으로 간다. 그러면서 서서] 오늘날은/ 풀어 풀어/ 시왕대번지¹⁵³⁾
/ 둘러받아/[신칼을 들고 患者의 등뒤로 온다] 풀어맞자

이때 빠르고 시끄러울 정도의 巫樂 伴奏가 시작되면서 양손에 신칼을 든 심방은 춤을 춘다. 그러면서 신칼점을 보기위해 신칼을 정리한다. 그리고 나서 患者 앞에서 두 개의 신칼을 오른손에 모아 쥐고 患者의 머리 위에서 한 바퀴 돌리고 나서 患者 옆(樂巫들이 있는 쪽)으로 나선다. 조금 患者 뒤로 물러 서면서 께상을 향해 섰다가 신칼을 던져 점을 친다. 이렇게 神意를 전달받으므로써 7分 30秒 정도가 소요된 ‘방울품’의 단계는 끝이 났다.

이 段階에는 본풀이에서 倭寇에 劫姦을 당해 죽은 처녀의 怨靈을 ‘고’를 풀어줌으로써 맺힌 간장을 풀었듯이, 이 患者의 병이 곧 오씨애기에게 맺혔던 상방울이며 강씨애기에게 맺혔던 증방울이며, 한씨애기에게 맺혔던 하방울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를 하나 하나 풀어야만 凶驗을 준 神의 간장을 풀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풀이가 역사적 事實들을 固定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굿은 이를 壘本으로 하여 歷史的 事實인 苦痛들을 祭場에 함축시킨다는 것이 밝혀진다.



3. 푸다시

巫占을 쳐서 神意를 傳達받은 심방은 신칼을 거두어 한 손에 한 개씩 나누어 쥐고 患者 앞으로 가서 반정도 앉는다. ‘방울품’의 結果가 巫占을 통해 나타났고, 그 結果의 行爲로 이 ‘푸다시’의 段階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때 빠른 속도의 巫樂 伴奏가 계속된다. 심방은 ‘허시’·‘허시’라고 하면서 얼굴을 찌프리고 신칼을 든채 두 손으로 患者의 가슴·머리·어깨 등을 사정없이 친다. 한참 동안 그러고는 심방은 일

153) 신칼을 일컫는 말

어나 등 뒤로 온다. 이 때는 물론 뱀처럼 바울친을 患者의 목에 감아둔 상태이다. 등 뒤로 와 반정도앉은 심방은 ‘허시’·‘허시’라고 하면서 등을 친다. 그러면 患者의 몸은 밀려다간 오곤 밀렸다간 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조금 일어난 자세로 심방은 患者의 머리를 한동안 치다가 양손에 들고 있던 신칼을 한 손에 모아쥐면서 정리한다. 그리고서 患者의 뒤쪽으로 와 췌상 쪽을 보며 신칼을 던진다. 巫占의 結果를 알아차린 심방은 신칼을 모아 들고 췌상으로 가서 신칼을 내려 둔다. 그리고 술 한 모금을 입에 담고 와서는, 목에 감아두었던 방울친을 풀어내고선 돌아 앉은 患者에게 후 뿌려준다. 이때 患者는 일어나 祭場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빠른 템포의 巫樂 伴奏는 완전히 끝이 난다. 이것으로 1分 30秒 정도 소요되는 ‘푸다시’ 段階는 끝난다. 이 때 소미는 조금전에 심방이 患者에게 뿌려 주기위해 마신 췌상의 술잔을 채워 올린다.

이 段階는 ‘방울품’ 段階에서 분리시킨 神의 惡한 면 중에서(이것이 病의 原因이며 苦痛의 原因이다. 즉 凶驗을 주는 神的 性格) 아직도 患者의 몸에서 빠져 나오지 않은 것을 신칼로 위협해 분리시키는 段階로 玄容駿이 지적한 협박구축의례¹⁵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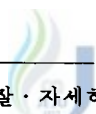
4. 갈통머리 내놀림

患者의 목에서 건어낸 방울친을 심방은 다시 오른손에 잡고 휘휘 돌리면서 뱀의 입·몸둥아리·꼬리 등을 만들어 초석 위에 놓는다. 이 때까지 엄숙하고 조용했던 가족 및 구경꾼들은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등, 祭場 全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 이 때는 巫樂 伴奏도 없다.

심방이 뱀의 모습이 된 바울친을 만지면서 ㅁ을 해 간다.

154) 玄容駿：“濟州島 巫俗研究” 1986. 集文堂, pp. 340~348.

요거보라/ 요거보라/ 요기배려보라 ¹⁵⁵⁾ /
 요거 동의와당 청룡머리/
 서의와당 백룡머리여/ 남의와당 흑룡머리토다/ 갈룡머리¹⁵⁶⁾로구나/
 요거불라불카브덴¹⁵⁷⁾ / 꿈지는 자지알러레 묻으어간다¹⁵⁸⁾ / [심방이 뱀이 된 바
 을 친 위로 걸터 앉으며] 요거 미시거 닦아 비우과¹⁵⁹⁾ [祭場에 참석한 모든 사람
 들이 웃음을 자아낸다. 왜냐하면 꼭 심방의 性器와 같았기 때문이다. 웃음소리
 가 끝날 때까지 심방도 웃다가 조용해 지자] 요것이/ 삼월 삼짖 날에 들민¹⁶⁰⁾ /
 궁기마다 솟아낭¹⁶¹⁾ / 예순 다섯/ 설운주당에¹⁶²⁾ / 한간도리 받아보저 네도리도
 받아보저 추년도리 받아보저/
 청구랭이 백구랭이 몸으로/ 흰생하여/
 영 뎡겨가민¹⁶³⁾ 푸다시라도 ㅎ주/
 큰곳이라 ㅎ주 작은곳이라도 ㅎ주/
 즈순에 들어 어지렸구나¹⁶⁴⁾ / 요거보라 /
 요거 승험이여¹⁶⁵⁾ / 벌방이여¹⁶⁶⁾ / ○○조화여/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155) 이것을 잘·자세히 보아라.
 156) 용의 이름, 褐龍
 157) 이것을 밟아 버릴 까봐
 158) 꼬리가 자지 밀으로 숨어 들어간다.
 159) 이것이 무엇을 닦아 보입니까
 160) 되면
 161) 솟아나서
 162) 서러운 주당(住堂)=환자의 집(?)
 163) 다니면
 164) 좋지 않게 했다.
 165) 이게 凶驗이다.
 166) 罪方이여

요거보라 독도덕 ㄱ치 셋새엄 ㄱ치/

[젓상에서 계란을 가져와 뱀의 입에 물리면서] 요거먹어놓고 들어놓앙/ 요거배
려보라/ 인정도란다¹⁶⁷⁾ [뱀의 입쪽을 가리키면서 구경꾼들에게] 이레 많이 겹서
/스정을 도란다

요게 갈용머리요/ 동의와당 청룡머리 서해와당 백룡머리/ 남의와당 적용머리¹⁶⁸⁾
'/ 북의와당¹⁶⁹⁾ 백룡머리/

[이때 祭主가 2,000원을 심방에게 건네주고 물러서면서]

祭主(女) : 돈 하영¹⁷⁰⁾ 걸었수다예

심방 : 이거 참 돈 만하다.

祭主(女) : 이만냥 걸었스면 됐지

심방 : 이만냥 요걸 여/

예순 다섯님(祭主의 남편)도 돈 걸어봅써

[심방은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방울친을 만지면서] 신랑 모진 승협주는건 가불
고/ 안으로 재앙칠석¹⁷¹⁾ 부군칠석¹⁷²⁾ / 팔모야광쥐¹⁷³⁾ 물어 들일거 아니오파/ 요
거봐 요게 돈꺼와 봅서/ [이때 祭場이 웃음소리로 가득해 진다. 祭主의 신랑은
생깃기둥인 듯한 곳에 굿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심방 : [신랑을 바라보며] 금년 굿해 부난 돈없고 새해냥 받을 걸로 패주¹⁷⁴⁾ 써부

167) 굿을 할 때 신에게 바치는 뜻에서 내놓는 돈, 옷, 지전등을 인정이라고 한다.
인정달라고 한다.

168) 용의 이름, 赤龍

169) 北海바다

170) 많이

171) 북두칠성이 아니고 富를 이루게 해 준다고 믿는 뱀신(蛇神)

172) 註의 댓귀, 같은 뜻.

173) 여덟 모를 가진 귀한 야광주=富의 상징이다.

174) 문서(돈을 건네주겠다는 신용장)

나/ 그것도 좋고 [이때 생깃기둥(신자리 바로 옆)에 앉아있던 심방이 만
원권 지폐를 건네준다] 요것보라/그자 심방은 굿만 & 민 돈만 도랜해여¹⁷⁵⁾
/ 그만이 주어건. 말주만은 원¹⁷⁶⁾/ 돈으로 천냥 은으로 만냥만이/
[祭場의 분위기가 조금은 바뀐다. 웃음과 재담을 주고 받던 것은 끝나고 심방은
뱀의 입에 물렸던 계란과 돈을 소미에게 건네준다. 그러면서]
동의와당 칠룡머리 서의와당 갈룡머리 모두/청룡머리로다/ 도리 한간도리 네도
리 발당/이집에 떨어지영 승험을 불러주던/ 모두 청룡머리 백룡머리 갈룡머리/
(칭 불)/천지황 골목더레 썰어 방송¹⁷⁷⁾/

이렇게唱을 하고 심방은 일어선다. 이와 동시에 빠른 템포의 巫樂 伴奏가 시작되
고 심방은 뱀의 입쪽을 잡은 방울친을 오른쪽 방향·왼쪽 방향으로 한참동안 돌리다
가 문밖으로 들어 던지는 시늉을 세 번이나 반복한다. 그러면 巫樂 伴奏는 사라지고
심방이 다시唱을 시작한다.

어-씨레 방송시켰더니만은/
그리말고 먹을 년 입을 년 정적중 나습던 등새 칠성한집님일랑¹⁷⁸⁾/
안으로 잉어 매살려¹⁷⁹⁾

이唱이 끝나면 심방은 젓상쪽에 서있던 소미에게 방울친(심방이 들고 서 있었다)
을 건네 주고, 젓상으로 가서 한 손에 신칼을 한 손에는 요령을 들고 초석으로 나선

175) 그저 심방은 굿만하면 돈만 달라하여

176) 그만큼 주었으면 그만하지 않고

177) 천지황 골목으로 썩썰어 보내버리자

178) 뱀신을 높여 이르는 말

179) 안으로 잉어 매어 살리자

다. 이때 방울친을 받아든 소미는 그것을 젓상이 있는 곳으로 옮겨 들인다.

이 段階에서는 兎山堂神의 兩面性 중에서 苦痛(病)의 原因으로 밝혀진 神을 惡神(천구 아구 대맹이)으로 規定하고, 쉽게 接할 수 있는 蠱으로 說明하여 천치황 골목으로 追放시킨다. 이와는 달리 富君七星이며, 팔모야광주를 물어다 줄 神은 집안으로 모신다.

이로써 굿의 目的인 治病은 가능해 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苦痛의 原因을 밝혀 追放하고, 追放시켰으므로 삶 의 苦痛은 없어지고, 새롭고 활기찬, 건강한 삶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5. 주잔넙김

신칼과 요열을 양손에 든 심방은 이들을 흔들며 巫樂 伴奏에 맞추어 唱을 해 나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진 갈룡머리 청룡머리/ 주잔드립내다”

라고 唱함으로써 儀禮는 전부 끝이나는 것이다. 소미·樂巫들도 쉬고, 심방도 ‘물 한 모금을 달라’면서 초석 밖으로 나가 앉는다.

兎山堂神에 對한 來歷譚인 본풀이를 심방이 唱하고 나서 곧이어 행해지는 儀禮로서 ‘방울품’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본풀이가 部落民들이 안고있는 歷史的 事實의 固定體라는 점과 곳은 이 歷史的 事實을 祭儀의 空間인 바로 이 祭場에 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곳에서 징·실세·장구·북 등의 巫樂器의 伴奏에 맞추어 심방을 준비해 두었던 ‘방울친’을 꺼내 들고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患者의 苦痛 原因과 본풀이에 나타났던 歷史的 事實로서 처녀의 怨恨을 連結시키고, 그 苦痛이 怨靈의 멧힘이므로 ‘방울친’의 고를 풀어야만 治病을 이룰 수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 고를 멧힘

을 풀듯이 하나 하나 풀어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맏힘은 神을 잘 모시지 않은 理由 때문이며, 이처럼 神을 잘 위하지 않으면 兩面性을 지니고 있는 神은 언제나 凶驗을 줄 수 있음도 아울러 밝힌다. 그리고 지금 患者에게 苦痛을 준 ‘어둠·陰·惡·죽음’ 등의 凶驗을 주는 神은 천지황 골목으로 追放시키고, 우리에게 ‘먹을연·입을연’을 주는 밝음·양·선·삶 등의 神은 집안으로 귀히 모신다. 이러므로서 兎山堂神에 대한 儀禮는 모두 끝이 나는 것이며, 생활속에서 위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로 結論을 짓는다면, 본풀이는 歷史的 事實을 固定하고 있는 것이며, 儀禮인 굿은 이 본풀이를 대본으로 하여 펼쳐지는 하나의 演劇¹⁸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굿은 神을 달는 단골이 어떠한 目的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巫俗 儀禮이다. 그러므로 본풀이는 神의 行蹟을 記錄한 것이면서 그 神을 위하는 方法을 提示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180) 심방이 본풀이를 대본으로 祭場에서 굿의 목적을 達成하기 위해 행하는 呪術的 行爲를 말하는 것으로, 감독의 지도하에 각본에 의해 분장한 배우가 등장하여 음악·조명·배경이 갖추어지고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보이도록 꾸며지는 개념과는 구분된다.

V. 結 論

이 論文은 濟州島의 民間信仰 가운데 가장 뚜렷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巫俗에 관한 研究이다. 呪術·宗教的 職能者로서 濟州島民의 生活 속 깊은데까지 關與해 온 심방은 굿이라는 巫俗儀禮를 통해 神과 人間을 媒介하는 媒介者이기도 하며, 本풀이라는 神話를 口演하는 口演者이기도 하다. 具體的인 研究對象은 이들 심방에 의해 執行되어왔던 濟州道 南濟州郡 表山面 兎山2里, 속칭 ‘알토산’에 모셔진 兎山堂神에 관한 兎山堂 굿에서 불려지는 儀禮의 本풀이와 그 儀禮形態이다. 兎山은 蛇神崇拜의 聖所로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진 바로 그 마을이다. 이 때문에 다른 堂이나 堂神들보다 많은 先行研究資料를 本研究에 利用할 수 있었다.

研究의 視覺은 “굿은 단골·심방·신의 信仰 3要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두었다. 굿은 궁극적으로 단골의 目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심방의 媒介와 儀禮 執行을 통해 神과 단골이 意思傳達(communication)를 할 수 있게 하는 場으로 가꾸어지며, 各各의 祭次에서 이것들이 表出되는 것이다. 神은 本풀이로서 그 神의 位置를 獲得하는 過程이 說明되고, 本풀이는 神聖空間인 祭場에 對象神이 到來하도록 돕는 구실을 하며, 結局에는 祈求事項을 들어주도록 한다. 더 나아가서는 特定儀禮의 形態를 決定짓기도 하는 것이다.

本研究의 目的達成을 위해 本풀이의 構成과 變異樣相을 살펴보고 本풀이의 文學的 意味도 抽出했다. 이러한 結果를 갖고 儀禮의 形態를 分析함으로써 本풀이와의 相關性을 理解하려는데까지 이르려고 했다. 이러한 研究의 結果로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었다.

1. 兎山堂 本풀이는 外來 入島神의 特徵을 보여주는 二重構造의 構成을 나타내고 있었다. 일반적인 堂神本풀이가 ‘出生—追放·行脚—司祭選定—坐定’이라는 構成을

갖는데 반해, 兎山堂 본풀이는 '出生-追放-단골選定(入島憑依)-坐定-凶驗-단골確認-坐定'이라는 構成을 갖는다. 이는 入島 前의 이야기와 入島 後의 이야기가 話動舞臺를 달리해 이루어지지만 入島憑依를 통해 하나로 結句된다. 이러한 二重構造가 外來 入島神의 본풀이 만이 갖는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2. 堂神을 祖上으로 觀念하여 모시는 '매인심방'이 그 神에 대한 來歷譚을 忘却할 수는 없겠기에 變異의 程度는 極히 制限의 이었다. 이는 두 가지를 說明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는 '매인심방' 一人에 의해 堂神에 대한 儀禮執行이 獨占·傳承되는 濟州島 巫俗의 特徵을 反映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堂神본풀이도 神聖性을 잃어버리면 쉽게 斷絶될 것이라는 점이다.

3. 兎山堂 본풀이는 주인공인 兎山堂神의 行蹟을 통해 '富의 追求'라는 民衆들의 基本심성을 투영한 文學作品이기도 하다. 또 兎山堂神은 밤·처녀로 觀 念 되 며 凶 驗 을 主 는 神 이 기도 하다. 다시 말 해 이 神 은 兩 面 性 을 지 니 고 있 어, 밝 음 · 陽 · 善 · 삶 등 의 意 味 를 지 니 는 神 이 면 서, 어 둠 · 陰 · 죽 음 등 의 意 味 도 함 께 지 니 는 神 이 다. 아 울 러 본 풀 이 는 神 의 行 蹟 을 통 해 韓 氏 애 기 · 康 氏 애 기 · 吳 氏 애 기 등 의 처 녀 로 대 변 되 는 部 落 民 들 이 받 아 온 歷 史 的 苦 痛 을 具 體 的 으 로 固 定 하 고 있 는 것 이 기 도 하 다.

4. 儀禮인 處 은 部 落 民 들 이 안 고 있 는 歷 史 的 事 實 즉 苦 痛 을 한 處 에 合 奏 시 키 는 場 이 다. 이 는 神 이 來 在 하 고 있 는 場 에 서 現 在 患 者 가 받 고 있 는 苦 痛 과 본 풀 이 에 固 定 된 歷 史 的 苦 痛 을 連 結 시 킨 다 음, 苦 痛 의 原 因 이 神 의 凶 驗 때 문 이 므 로 본 풀 이 가 規 定 하 고 있 는 治 癒 方 法 대 로 處 를 하 여 神 을 위 하 고, '고'를 풀 어 나 가 는 것 이 다.

5. 神이 갖는 兩面的 性格 중에서 '고'를 푸는 儀禮形態에서 凶驗의 證據物인 어 둠 · 陰 · 惡 · 죽 음 의 要 素 즉 現 在 患 者 의 苦 痛 連 結 된 歷 史 的 事 實 (苦 痛)을 追 放 시 켜 버 린 다. 그 리 고 나 서 '먹 을 인 연 · 입 을 인 연'을 주 는 神 은 집 안 으 로 모 신 다.

6. 그러므로 본풀이는 歷史的 事實을 固定한, 處 의 臺 本 인 것 이 다. 그 리 고 兎 山 堂 處 은 이 러 한 歷 史 的 事 實 을 祭 儀 의 場 에 合 奏 시 켜 놓 은 하 나 의 演 劇 인 것 이 다.

以上과 같이 본풀이는 神의 行蹟을 說明하는 神話이면서 곳의 形態를 規定함으로써, 巫俗儀禮를 維持시켜온 것임이 兎山堂 본풀이의 研究에서도 驗證되었다. 동시에 兎山堂 곳은 苦痛의 連續이었던 삶의 現場에서도 濟州島民으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켜준 精神的 依支處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鄉土色 짙은 濟州島 民俗文化 중에서도 重要的 文化要素로 자리잡게된 것이다.



參 考 文 獻

- 高光敏：濟州島處女堂본풀이研究，1982. 碩士學位論文，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金烈圭：韓國民俗과 文學研究，1971. 一潮閣.
- _____：韓國神話와 巫俗研究. 1977. 一潮閣.
- 金榮敦：濟州島民謠研究 1981. 도서출판 반석
- 金仁會：韓國巫俗思想研究 1987. 集文堂.
- 金一根：“韓國民謠의 內容分析”，「民俗學研究」，1981，正音社.
- 金泰坤：韓國巫俗研究. 1981，集文堂.
- 金和經：“西歸浦 本鄉堂 본풀이의 構造分析”，「구비문학」5，198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文武秉：濟州島굿의 演劇性에 관한 研究，1984，碩士學位論文，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朴敬口：“제주도 巫俗神話의 몇 가지 특징”，「국어국문학」96，1986. 국어국문학회.
- 南濟州郡：南濟州郡誌，1986. 南濟州郡. UNIVERSITY LIBRARY
- 박진태：“한국신화와 연극, 제의의 대응양상”，「국어국문학」93，1985. 국어국문학회.
- 徐大錫：“巫歌”，「韓國民俗大觀」6. 1982. 高大民族文化研究所.
- “韓國巫歌의 研究. 1980 文學思想社.
- 柳京姬：“神話와 象徵研究에 있어서 意味의 外面的 차원과 內在的 차원의 問題” 「宗教學研究」5，1985. 서울大宗教學研究會.
- 李杜鉉：“洞祭와 堂굿”，「師大論叢」17輯，1978. 서울大學校.
- 李南植：“五鳳山城 山神祭와 堂告祀” 「韓國民俗學」1983. 民俗學會.
- _____：“農耕生産神의 役割構造와 民間信仰體系” 「社會文化論叢」3輯，1983，서울

大學校。

이수자：濟州島 巫俗과 神話 研究, 1988. 博士學位論文,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林在海：說話의 現場論的 研究, 1986. 博士學位論文, 嶺南大學校, 大學院.

_____：「韓國文學研究入門」1982. 知識產業社.

張德順：說話文學概說, 1974, 三友社.

張壽根：“濟州島巫俗의 地域域에 對하여”「濟州島」15, 1969, 濟州道.

_____：韓國口碑文學史”上「韓國文化史大系」, 高木民族文化研究所.

趙東一：叙事民謠研究, 1979. 啓名大學 出版部.

_____：우리문학과의 만남, 1978, 弘盛社.

_____：구비문학의 세계, 1980, 새문社.

_____：한국문학통사, 4, 1986. 知識產業社.

秦聖麒：南國의 巫歌. 1968, 濟州島民俗文化研究所.

_____：南國의 地名由來, 1975, 濟州民俗研究所.

_____：“本島巫俗神話와 祭次의 實態”「濟州島」21, 1974, 濟州道.

_____：“濟州島의 뱀 信仰”「韓國文化人類學」10, 1980. 韓國文化人類學會.

_____：南國의 巫俗, 1988. 螢雪出版社.

濟州道：「濟州道誌」下. 1986, 濟州道.

卓明煥：“濟州蛇神 信仰에 대한 小考”「韓國文化人類學」10, 1978, 韓國文化人類學會.

玄吉彥：“風水(斷脈) 說話에 대한 一考察”「韓國文化人類學」10, 1978, 韓國文化人類學會.

玄容駿：“濟州島 堂神話考”「제주도」3, 1961, 濟州道.

_____：“堂神話의 Motif와 基本形式”「國文學報」2, 1964, 濟州大 국어국문학회.

_____：“堂神話의 內容構成과 背景民俗信仰”「濟大學報」9, 1967. 濟大總學生會.

_____：濟州島 토산당굿, 1966, 文化財管理局.

- _____ : “濟州島巫俗儀禮研究”, 「論文集」7, 1976. 濟州大學校.
- _____ : “濟州島巫俗資料事典, 1980. 新丘文化社.
- _____ : “濟州島 巫神의 形成” 「耽羅文化」 창간호, 1982. 濟州大耽羅文化研究所.
- _____ : 濟州島巫俗研究, 1986. 集文堂.
- 大林太良, 「神話學入門」1966, 中央公論社.
- 秋葉隆, 「朝鮮民俗誌」昭和 二十九年. 六三書院.
- Ember, C. R. & Rmber, M. 「Cultural Anthropolog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1973. Prentice-Hall.



Summary

A Study of 'Tosan—Dang Bonpuri(Myth)'

This thesis is the study that cheju-island's shamanism is general in Cheju folk religion. 'Sim—Bang' mediated between men and deity in shamanistic rituals. 'Bonpuri(=Myth)' is account of the deity's life, an oral literature which has been handed down by 'Sim—Bang'(=priests). The concrete items of this study are 'Bonpuri' and ..ritual form of 'Tosan—Dang sin(=regional deity)'.

'Tosan' village has announced as a sacred place of a snake deity's worship. Then the materials of scholars was used by this thesis.

The writer analyzed Tormative factor, the degree of transform, literature significance of 'Bonpuri', and then analyzed mutual relation of 'Bonpuri' and ritu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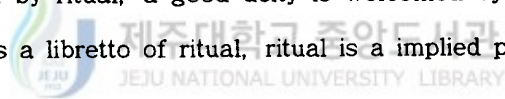


Representative results of this thesis are following.

1. The common constructron of 'Tosan—Dang Bonpuri' is though each versions represent different, double structure of composition. The composition of a common myth is 'growth—expulsion. a walking tour—selection of priests—being seated'. But the composition of 'Tosan—Dang Bonpuri' is 'growth—expulsion—selection of belivers—being seated'—a curse—confirmation of belivers. —being seated'

Double structure of composition formed the basis of deity's back-ground.

2. The degree of transform was confine, because 'Bonpuri' hands down by 'Sim-Bang', who thought as an ancestor deity. This explains two viewpoints, one is cheju-island's shamanistic character, another will be easily lose sight of 'Bonpuri' of Dang-Sin(=regional deity)
3. 'Bonpuri' of 'Tosan'-Dang is literature that pursues riches. It is a standard nature of folk, 'tosan-Dang Sin' was thought as virgin and snake that gives a curse. This deity have good and evil. 'Bonpuri' of 'Tosan-Dang' fixed concretely a historical anguishes. It is village virgins' anguishes.
4. Ritual of 'tosan-Dong' imply in a ritual ground historical anguishes This connects between anguishes of a patient and historical facts of 'Bonpuri'. Anguishes of a patient is a curse of deity The method of healing get loose knots.
5. The curse of deity is a bad factor of both faces of deity. then a evil deity is expelled by ritual, a good deity is welcomed by villagers.
6. 'Bonpuri' is a libretto of ritual, ritual is a implied play of historical facts



감사의 글

本 論文이 完成되기까지 엄밀한 現地調査와 確연한 論理體系를 強調하시며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신 玄容駿 선생님과 梁重海·許椿·金昞澤·文武秉·高光敏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學部時節부터 勇氣와 보살핌을 함께 주셨던 成炳禧·李南植·張哲秀·林在海·金明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셨던 濟州民俗村의 朴成俊 회장님과 관계 任職員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끝으로 오늘 이순간까지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으시는 父母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 論文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지켜봐준 아내와 아들 재연이에게도 고마움을 표하다.



金 東 燮 拜